



2013

경제·산업 전망

불확실성 고조 속 하방 리스크 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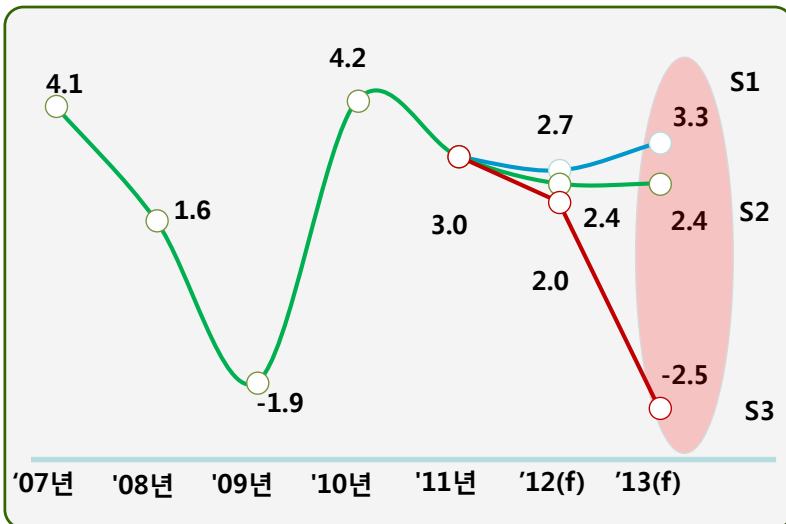
2012년 11월

posco
포스코경영연구소

Executive Summary

- 2013년 세계경기는 선진국 부진 심화와 신흥국 회복 지연으로 低성장 지속 전망

2013년 세계 경제 전망 및 시나리오



○ 완만한 회복(S1 : 20%)

- 정책공조로 남유럽 위기 완화
- 미, 중 경기 회복

○ 低성장 지속(S2 : 65%)

- 남유럽 위기 장기화
- 5대 리스크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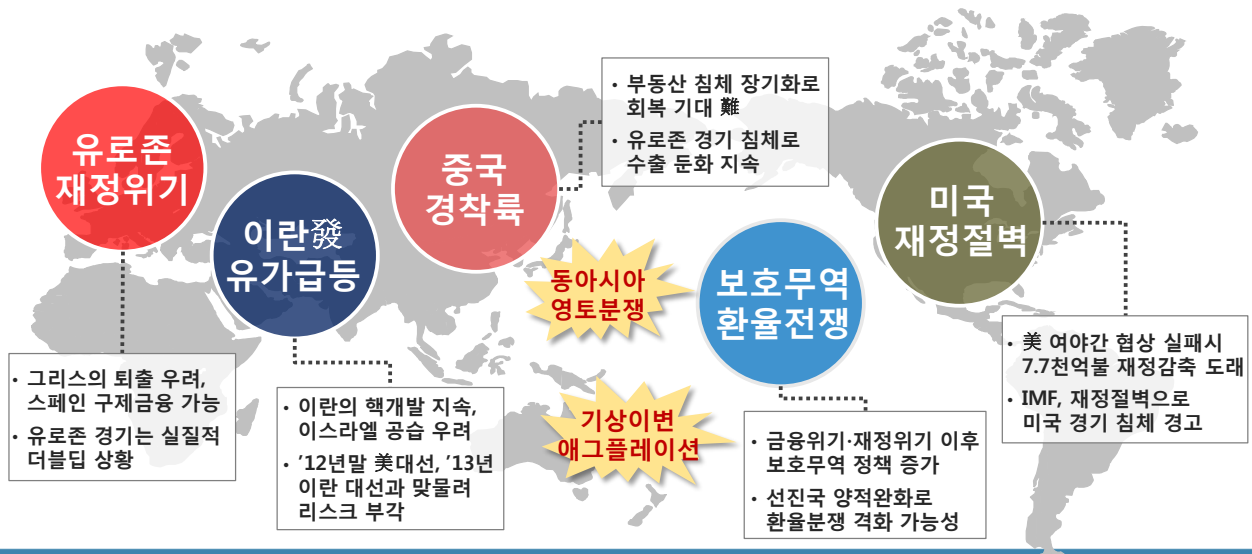
○ 더블딥(S3 : 15%)

- 그리스 탈퇴로 남유럽 파급
- 美 재정절벽, 中 경착륙 현실화

■ 글로벌 5대 리스크, 2013년 세계경제를 지속 위협

- '13년에도 글로벌 최대 리스크는 유로존 재정위기
'위기발생→임시대책→단기효과→위기재발'의 되풀이 가능성
- 또한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착륙, 이란발 유가급등 우려,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경기의 펀더멘털 회복이 어려울 전망

글로벌 5대 리스크



세계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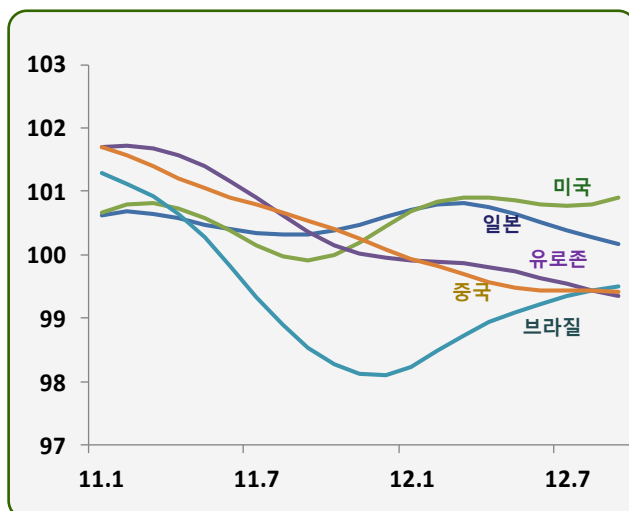
□ 세계 경기,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 재정절벽 등 선진국의 재정악화 영향으로 펀더멘털 회복이 지연되고 低성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

- 내년 세계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재정 여력 약화 및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연평균 2.4% (PPP 기준 3.1%)로 금년 수준에 그칠 전망
(상반기 2.2%, 하반기 2.6%)
- 구미 각국의 高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긴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으로 글로벌 산업생산 및 무역도 상반기까지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
- 올해 9월 이후 미국 3차 양적완화, ECB 무제한 국채매입, 일본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가 시행되고 있으나 재정긴축으로 실제 정책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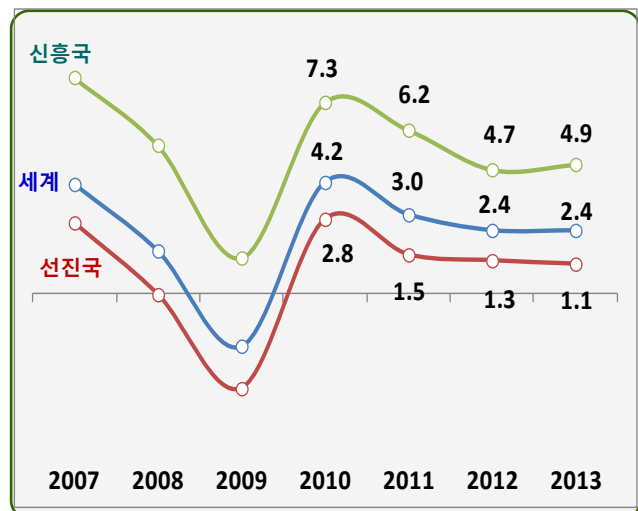
□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착륙, 보호무역 강화, 이란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2013년 글로벌 경제는 더블딥 우려

-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국제공조 미흡으로 ‘위기발생→임시대책→단기효과→위기재발’ 되풀이 예상
- 내년 초 미 여야간 정치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실물 경기에 큰 충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올해 말 정권 이양 이후 신지도부 간 갈등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에 난항 예상

세계 주요국 선행지수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선진국의 과도한 부채 축소를 위한 긴축재정, 가계 및 기업의 심리 위축, 高실업 장기화로 실물 경기 부진 심화 전망

- 미국,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에 따른 수출 둔화와 재정절벽 우려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으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 대비 하락한 1%대 후반에 그칠 전망
- 유로존, 정부부채 부담 증가와 실물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전망
- 일본, 경기부양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지진 복구 수요의 소진 및 정부부채 증가로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 초중반으로 다시 떨어질 전망

□ 신흥국의 경우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하방 리스크로 수출 회복은 지연되나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을 통한 내수 확대로 내년 경기는 소폭 회복 전망

- 중국은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출이 지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도부 교체 이후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나타나며 내년 7% 후반대 성장률 예상
- 인도는 재정건전화 정책, 투자개혁 지연, 반복적 기상 이변에 따른 농업생산 위축 우려로 내년 성장률이 6%에 그칠 전망
- 인도네시아, 2013년 대외 여건 악화로 큰 폭의 성장을 개선은 어려우나, 민간소비 및 투자의 점진적 개선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예상
- 브라질,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감세, 인프라 투자 등 적극적 경기부양과 2014년 월드컵 개최라는 호재에 힘입어 2013년 성장률은 3.8%로 회복될 전망

세계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세계	3.0	2.4	2.4	인도네시아	6.6	6.1	6.4
선진국	1.5	1.3	1.1	베트남	5.9	5.1	5.4
미국	1.8	2.0	1.8	태국	0.1	5.4	3.5
유로존	1.5	-0.5	-0.5	중남미	4.1	2.8	3.6
일본	-0.7	1.8	0.5	브라질	2.7	1.6	3.8
아시아 (일본 제외)	6.7	5.6	5.8	MENA	3.1	3.2	3.6
중국	9.2	7.7	7.9	아프리카(사하라이남)	4.8	4.9	5.1
인도	6.9	5.1	6.0	러시아	4.3	3.8	3.8

국내 경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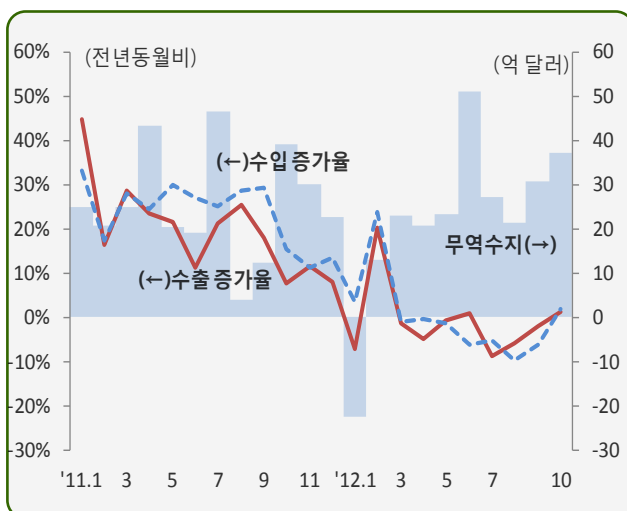
□ 국내 경제,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투자 부진 등으로 내년 연평균 3.0% 성장에 그칠 전망

- 글로벌 경기의 더딘 회복으로 인해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며, 원화 강세에 따른 무역흑자 축소와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악화로 경상흑자 감소
- 실질소득 개선 지연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할 전망
- 설비투자는 수출 회복세 미약과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으로 5%대 증가에 그칠 전망
-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침체 및 SOC 신규 발주 축소 불구 비주거용 건축과 기발주된 민간 플랜트 공사 시행으로 소폭 증가된 1%대 낮은 성장률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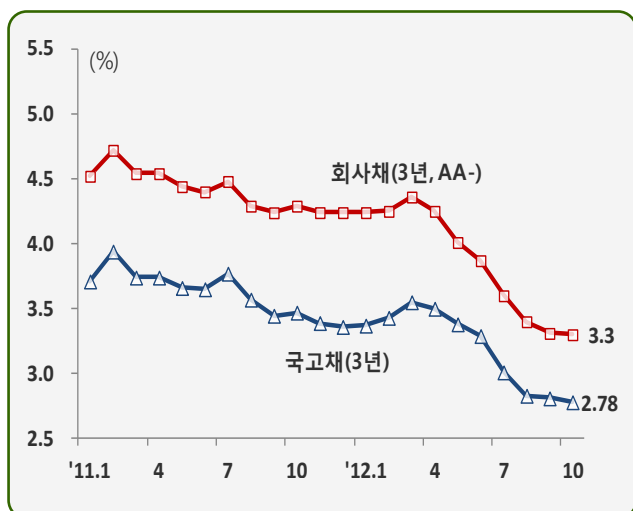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투자 유입과 경상수지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 재정절벽·유로존 위기 장기화로 제한적 하락세 전망. 금리는 낮은 수준 지속 예상

- 원/달러 환율은 주요국 양적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 유입과 불확형 경상흑자로 인해 하락세를 보이나 유로존 위기 미해결로 변동 장세속 하락폭은 제한적 (2013년 연평균 1,080원)
- 경기 부진 지속 예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으며, 국고채 등 시장금리는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 (국고채3년 연평균 3.3%)

수출입과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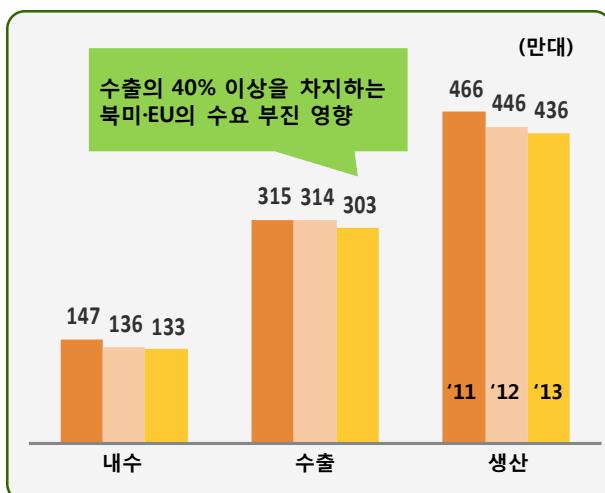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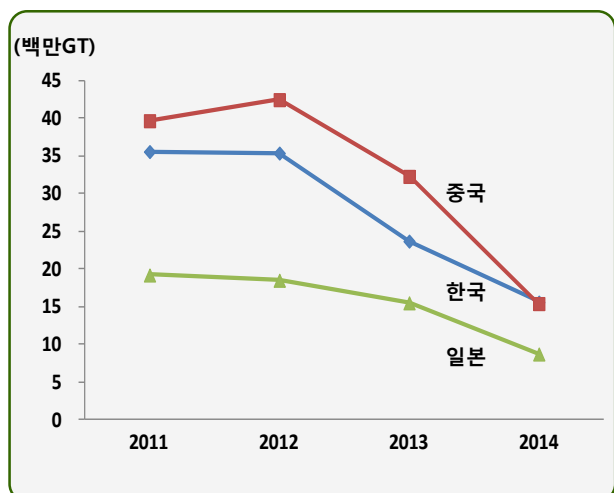
주요 산업 전망

- 제조업,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 및 내수 위축으로 **2013년 실적 개선이 어려울 전망**
 - 자동차,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수 시장 침체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수출 역시 2013년 중 본격적인 회복이 어려울 전망
 - 조선,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신규 수주가 극심한 부진을 기록하면서 대규모 선박 해체가 없다면 현재의 조선 경기 침체는 5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
 - 가전은 신흥국 경기부양에 따른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선진국 수요 부진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일 전망
- 건설 주택시장 침체와 정부의 **SOC** 투자가 계속사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국내 및 해외 건설시장의 수주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 철강, 내수·수출 동반 위축 및 공급 과잉으로 **2013년에도 회복이 어려울 전망**
 - 국내 철강수요는 자동차 생산 감소, 조선 경기 침체, 건설 경기 회복 지연으로 2012년(-3.8%) 대비 1%대 증가에 그칠 전망
 -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 지속으로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수입재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우려

자동차 내수·수출·생산 전망



주요국 조선 건조량 전망



〈2013년 국내 경제 및 산업 전망〉

(전년동기비 %, 억 달러, \$/bbl)

	2011	2012			2013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3.6	2.5	2.1	2.3	2.8	3.2	3.0
민간소비	2.3	1.3	1.4	1.4	2.2	2.8	2.5
설비투자	3.7	2.2	-1.3	0.4	4.6	7.0	5.8
건설투자	-5.0	-0.6	0.6	0.1	1.2	1.8	1.5
수출(통관)	19.0	0.5	-2.2	-1.1	3.8	7.9	5.8
수입(통관)	23.3	2.3	-2.3	0	5.2	10.2	7.7
경상수지	252	137	191	328	80	90	170
실업률	3.7	3.6	3.0	3.3	3.1	3.4	3.3
소비자물가	3.0	2.7	2.1	2.4	2.9	3.2	3.0
국고채(3년)	3.6	3.5	2.9	3.1	3.1	3.5	3.3
원/달러 환율	1,108	1,142	1,116	1,129	1,088	1,072	1,080
유가(두바이)	107	111	109	110	112	115	113
자동차 생산	9.0	3.4	-11.8	-4.3	-6.4	2.2	-2.2
신조선 건조	9.4	20.0	-22.8	-1.7	-26.7	8.6	-12.6
가전 생산	1.4	-5.8	-0.5	-3.4	0.7	7.5	3.9
철강 내수	7.6	-7.9	1.0	-3.8	0.9	1.8	1.3

주 : 자동차, 신조선건조, 가전생산, 철강 내수는 각각 대수, 백만GT, 생산지수, 톤 기준

목 차

I. 국내외 경기 흐름 및 2013년 전망 개관	1
II. 세계 경제	13
1. 선진국	14
2. 신흥국	19
(1) 중국	19
(2) 동남아시아	22
(3) 아프리카·MENA	25
(4) 러시아·CIS	29
(5) 중남미	31
III. 국내 경제	33
IV. 원자재시장	46
1. 국제 유가	47
2. 비철금속	49
3. 철광석	52
4. 원료탄	54
5. 천연가스	56
V. 주요 산업	58
1. 자동차	59
2. 조선	61
3. 건설	63
4. 가전	65
5. 철강	67

I. 국내외 경제흐름 및 2013년 전망 개관

“글로벌 5대 리스크가 국내외 경제회복 위협”

- 세계 경기, 유로존 재정위기·미 재정절벽 등 주요국의 재정악화 영향으로 펀더멘털 회복이 지연되고 低성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
- 내년 세계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재정 여력 약화 및 소비·투자심리 위축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2.4% (PPP 기준 3.1%)로 금년 수준에 그칠 전망 (상반기 2.2%, 하반기 2.6%)
- 美유로존 등의 재정긴축 및 高실업률 지속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 산업생산·무역 부진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중국 경착륙, 보호무역 강화, 이란발 유가 급등 리스크 상존으로 2013년 글로벌 경제 더블딥 우려는 여전
- 유로존 재정위기는 내년에도 최대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 공조 미흡으로 ‘위기발생→임시대책→반짝효과→재악화’가 되풀이 될 우려
- 내년 초 미 여야간 정치적 합의에 실패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실물 경기에 큰 충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
-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올해 말 정권 이양 이후 신지도부 간 갈등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 관리에 난항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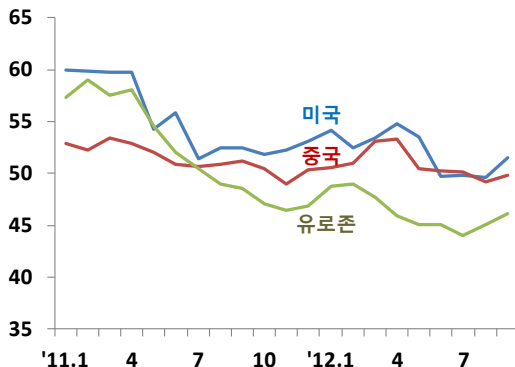
1. 글로벌 경제 2

2. 국내 경제 11

1. 글로벌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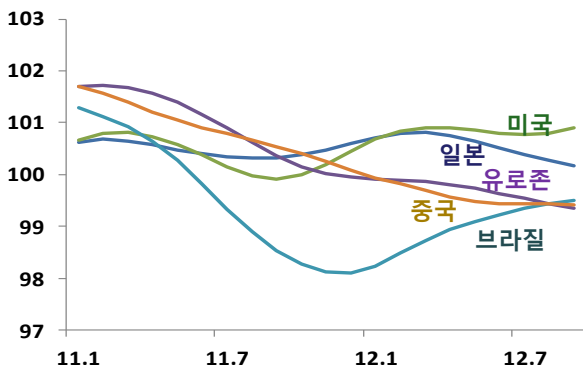
“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실물경기 부진 심화 ”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자료 : Bloomberg

OECD 경기선행지수



자료 : Bloomberg

세계 경기,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진 심화

2011년 하반기 시작된 세계 경제의 부진이 올해 4분기 까지 계속 심화되고 있다.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던 중국 경제성장률은 올 2분기에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7%대로 하락했으며, 3분기에는 7.4%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경우 복구 수요가 소진되는 모습을 보이며 3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연율 -3.5%로 급락했으며, 재정위기를 겪는 유로존은 분기별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이 3분기에 전기비 연율 2.0%로 다소 반등했으나 아직 회복 단계라고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다. 세계경기는 특히 수출 및 제조업 부문에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으며 산업생산도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5대 리스크가 2013년에도 세계경제를 위협

세계 경기 부진 심화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 부각이 주요 원인이다. 올해 9월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천명 이후에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는 지속되고 있으며,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재정절벽 리스크는 대선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증시에 불안을 낳고 있으며 민주-공화당의 초당적인 합의가 없이는 내년 세계 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내수 확대 및 경기부양책으로 내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신지도부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 실패 시 경기가 다시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이란 핵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 가능성과 보호무역·환율전쟁도 내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글로벌 주요 리스크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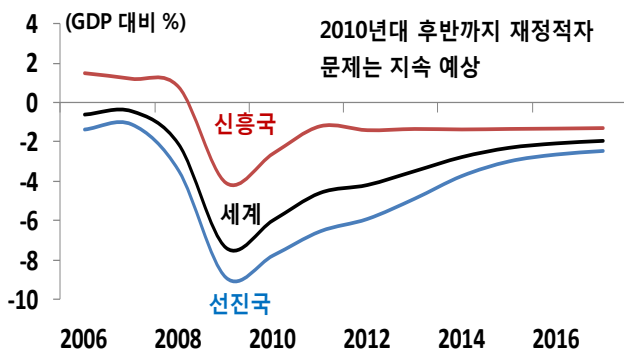
“ 선진국 재정문제 해결, 글로벌 Rebalancing 으로 세계 경기 부진 장기화 우려 ”

2013년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11	2012	2013
세계	3.0	2.4	2.4
선진국	1.5	1.3	1.1
미국	1.8	2.0	1.8
유로존	1.5	-0.5	-0.5
일본	-0.7	1.8	0.5
아시아 (일본 제외)	6.7	5.6	5.8
중국	9.2	7.7	7.9
인도	6.9	5.1	6.0
인도네시아	6.6	6.1	6.4
베트남	5.9	5.1	5.4
태국	0.1	5.4	3.5
중남미	4.1	2.8	3.6
브라질	2.7	1.6	3.8
MENA	3.1	3.2	3.6
아프리카(사하라이남)	4.8	4.9	5.1
러시아	4.3	3.8	3.8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진국 및 신흥국 재정수지 중기 전망



자료 : IMF

내년 세계경제는 2.4% 성장에 그쳐 부진 지속 전망

세계 주요국의 정부 지출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4%의 저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긴축을 통해 재정 건전화에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고실업률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금융불안을 촉발했던 가계부채도 감소세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2013년에도 경기는 본격적인 회복 모멘텀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금융시장의 경우 미국 재정긴축 논란과 더불어 유로존 재정위기를 둘러싼 정책 공조 미흡으로 불안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신흥국 성장률은 소폭 개선되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은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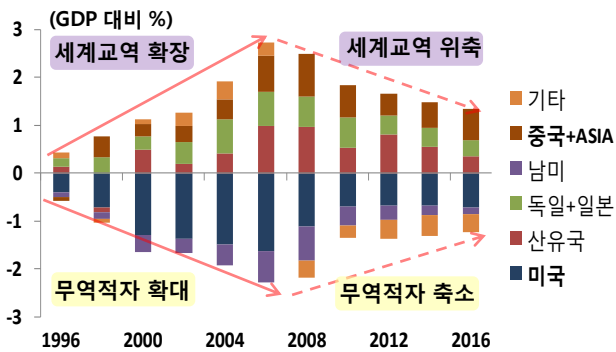
2012년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4%에 이르는 등 신흥국 경제도 크게 둔화되는 양상이다. 내년에는 내수 확대 및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대비 성장세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신흥국 경기 동조화 경향 및 對선진국 수출 부진을 감안할 때 신흥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리스크 확대로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 상실 우려

IMF는 올해 10월 세계 주요국 재정적자 문제는 2010년대 후반까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재정적자 부담으로 세계 주요국들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Rebalancing도 세계 경기에는 부정적 요인이다. 2007년 이전까지 세계 교역은 지속 성장했으나,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무역적자 또한 확대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를 축소하고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무역 불균형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선진국들의 과소비 경향 축소와 신흥국의 내수 확대를 통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려우며 세계 경기 부진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 내년 독일 선거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 유로존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

글로벌 Rebalancing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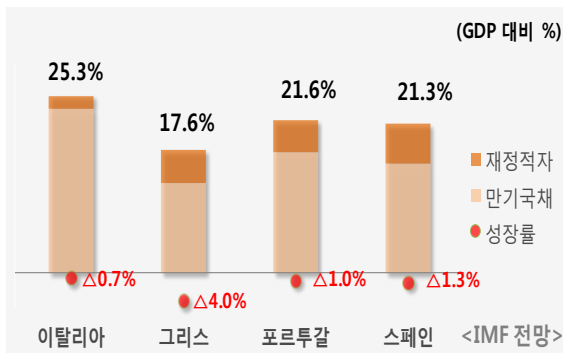
자료 : IMF, 포스코경영연구소

유로존 재정위기 일지



자료 : Bloomberg, 포스코경영연구소

2013년 위기국 재정조달 필요 규모



자료 : IMF

'13년에도 최대 리스크는 유로존 재정위기

2010년부터 최근까지 유로존 재정위기는 반복되고 있다. 2010년에는 그리스 1차 위기, 아일랜드·포르투갈 구제금융 신청이 있었고, 2011년에는 그리스 2차 위기가 발생했다. 올해 초에는 유로존 불안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5월에 그리스 문제가 재발하여 스페인마저 은행 부문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유로존은 위기의 진원지인 남유럽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력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2013년에 조달해야 할 재정자금이 GDP의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도 유로존 재정위기가 세계 최대 리스크로 부각될 가능성이 여전하다.

근본적 대책이 아닌 對症 요법에 그쳐 위기 반복

유로존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EU 및 ECB는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2010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설립했으며 올해부터는 유럽안정화기구(ESM)가 출범했다. ECB는 지속적인 금리인하 및 각국 국채매입 등을 실시했으나,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유로본드 발행, 재정 동맹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로존 위기 해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의 총선이 내년 9월이어서 하반기 들어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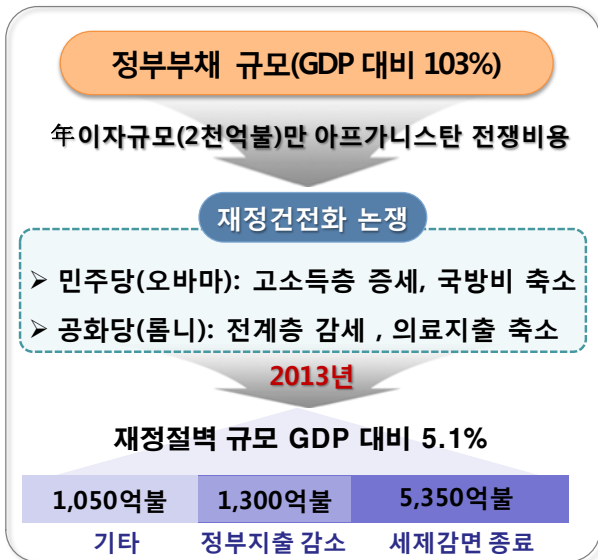
유로존 내 공조 미흡으로 획기적 대책 난망. 현재로서는 2년 내 그리스 탈퇴가 유력

올해 5월 초 그리스 1차 총선에서 긴축 반대파의 부상으로 연정 구성이 좌절되자 그리스의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우려와 함께 스페인으로 불안이 확산되었다. 그리스 국채(10년물) 금리가 30%대로 재진입했으며, 스페인 국채(10년물) 금리도 위험선인 7%를 넘나들었다.

6월에 시행된 2차 총선에서 다행히 긴축을 옹호하는 신민당이 승리했고 9월 들어 양적완화가 시행되면서 단기적으로 그리스 리스크는 완화되었다. 그러나 그리스의 취약한 재정 여건 및 경기 침체로 인해 긴축이 기존 합의대로 이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정긴축 이행이 중단될 경우 그리스 디폴트 및 질서 있는 유로존 탈퇴 우려로 시장불안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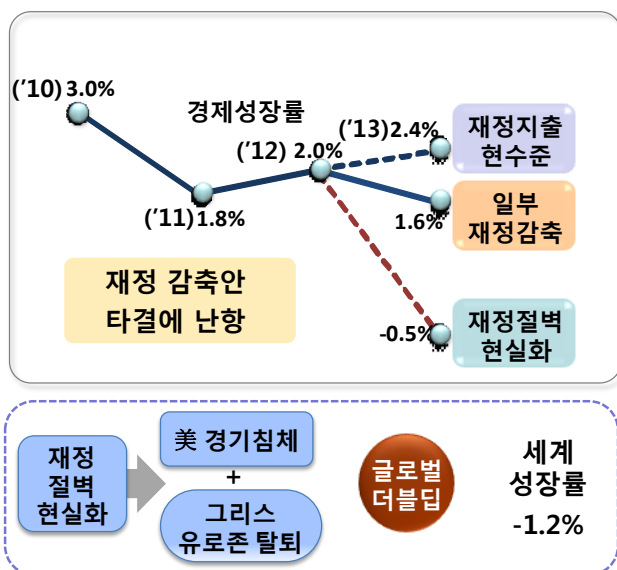
“미 여야간 재정긴축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파국 사태를 피할 것이라는 것이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그러나 협상 과정 중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 불안은 불가피”

미국, 2013년 7.7천억불 재정감축 도래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미국, 감축안 조정 실패 시 영향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2008년 이후 미국의 연방부채, 전시 수준으로 급증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 확대와 3차에 걸친 양적완화로 미국의 연방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2011년 말 GDP대비 연방부채 비중은 67.7%, 주정부 및 공공부채를 포함시킬 경우 102.9%에 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실자산매입 및 재투자법 시행(7827억 달러, 2009년), 세금공제 및 고용촉진법 시행(8,578억 달러, 2010년)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 최근 까지 시행된 3차에 걸친 양적완화도 지속적인 정부부채 증가를 가져왔다.

재정절벽도 임박해 있다. 내년 초 미 여야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각종 감세혜택 종료 및 재정지출 자동 삭감으로 경제가 급락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내년도 미국의 재정긴축액은 7.7천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 GDP의 5.1%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이다. 금년말로 부시 행정부의 감세조치 및 급여세 감면이 종료되며, 소득 공제 대상도 축소된다. 2011년 11월, 미 여야간 재정감축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2022년까지 매년 1,100억 달러씩 총 1.2조 달러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긴급 실업급여 프로그램도 종료될 예정이다.

미 재정절벽,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미 의회예산국은 올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재정절벽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 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8월 보고서는 재정절벽 발생시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0.5%로 1%p 하향 조정했다. 동 보고서는 “의회가 예정된 재정과 조세 정책 변화를 수용할지, 아니면 이를 변경할지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미국 재정수지와 경제 전망이 좌우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IMF도 최근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미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했다. IMF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의 재정절벽은 중단기적으로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언급했다.

현재로서는 미 여야간에 재정긴축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파국 사태를 피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러나 협상 과정 중의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 합의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신지도부가 대내외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 ”

“ 이란 핵 사태는 내년에도 해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중국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

대외 리스크 요인

유럽 재정위기 → 선진국 경기둔화 → ① 수출둔화 가속

대내 리스크 요인

경기부양 후유증 → ② 부동산 침체 장기화
③ 공급과잉 확대
④ 계층간 갈등 심화
⑤ 지도부 교체기 정치리더십 약화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중국 경착륙의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리스크 관리 실패시 큰 폭의 경기둔화 우려

최근 중국은 최대 수출 대상 지역인 유로존 경기 침체로 수출이 급속히 둔화되었다. 증치세 환급 등 수출 활성화 정책에 나서고 있지만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수출의 빠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기조 유지로 부동산 침체 장기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도한 투자에 의존한 성장에 따른 과잉 설비도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이다. 정부는 산업정책을 통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정부의 저항으로 과잉 설비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 확대로 사회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체제 안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동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교체에 따른 정치 리더십 약화도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올해 11월 정권 교체 이후 신지도부 계파간 갈등 표출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태자당과 공청단 간 경제노선의 차이에 따른 정책 실기의 우려가 있다.

이란발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 재급등 리스크 상존

미 대선을 전후로 미국 정계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후보 롬니는 ‘미국의 강한 지도력’을 표명하며 군사행동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선거를 의식해 이란 핵 관련 강경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겠다고, 신속한 공격 결정을 위해 총리 권한을 강화했다. 한편, 이란은 이스라엘 공습 시 인근 미군기지를 공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내년 6월 이란 대선에서 강경파가 집권할 경우, 이를 계기로 이란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란 핵 사태는 내년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며, 유가 불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 2013 년 보호무역 및 환율 전쟁 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할 우려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 ❖ 선진국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반독점법, 기술표준 등 내국법 활용
→ 해외 경쟁기업 경쟁력 약화 도모
- ❖ 신흥국은 수량제한, 수입관세 인상 등 강화
→ 즉각적인 수입규제 조치 활용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환율전쟁, 본격 확산 우려

선진국	롬니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美-中 간 긴장 자극
아시아	중국, 한국 등 수출 의존도 높은 국가들의 성장 모멘텀 둔화
BRICs	브라질, 러시아, 호주 등 원료 수출국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 비난

신흥국 통화 강세 대응 위해 금리인하(10월)

- 호주 : 3년 만에 최저 수준 (3.5% → 3.25%)
- 브라질 : 사상 최저 수준 (7.75% → 7.5%)
- 한국 : 올 들어 2번째 인하 (3.0% → 2.75%)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로 각국 보호무역정책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크게 증가했다. 2008년 11월에는 보호무역 조치가 2001년에 불과했으나 2012년 상반기 말에는 2430건으로 429건이나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로존 재정위기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자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무역 진작에서 찾고자 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및 반독점법, 기술표준 등 내국법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해외 경쟁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맞서 신흥국도 수입 물량 제한, 수입관세 인상 등을 통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보호무역 주의는 2013년 글로벌 차원의 트렌드로 발전되어 세계 무역 및 경제 회복을 저해할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 후유증으로 선진-신흥국간 환율전쟁 촉발

올해 하반기에 경기 회복을 빌미로 선진국들은 대규모 양적완화를 단행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6일 무제한 국채매입을 시행했으며, 미 연준은 제로금리를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할 것을 천명하고 월 400억 달러의 모기지 증권을 무기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차 양적완화를 실시했다. 일본도 9, 10월 장기국채 10조엔, 단기국채 10조엔 등 21조엔의 매입 한도 확대를 통해 추가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양적완화는 자국의 재정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신흥국의 통화 강세를 노린 정책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환율 관련 분쟁이 부각되고 있다. 미 공화당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중국 등 신흥국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 브라질, 러시아, 호주 등 신흥국·자원수출국들은 선진국의 통화 정책을 맹비난하고 있다. 또한 자국 통화 강세에 맞서 호주, 브라질 등이 금리 인하로 대응하는 양상이다.

아직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 등 국제 공조 필요성으로 환율전쟁이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나, 내년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기업 실적 악화가 심화되면 WTO 제소 등 보호무역 전쟁이 보다 강화되고 환율 분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3~5년간 글로벌 중기 경제 시나리오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을 보이는 듯했던 세계경제가 재정위기로 이어져 금융·실물 장기 복합불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1930년대 대공황의 경험을 살려 적극적인 G20 공조를 이뤄냈으나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자 공조체제가 약화되었고 소위 'G-zero'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되었다.

유로존 재정위기는 획기적인 공조체제가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구와는 달리 그동안 정치 지도자들의 행보가 자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세계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작년 상반기 이후 유로존 내 국가 지도자들 간에 정치적인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는 시장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미봉책으로 점철되면서 큰 폭의 시장 등락이 반복되다가 금년 9월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국채 무제한 매입 결정에 힘입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유로존 국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경제적인 타결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를 피하기 위해 재정긴축의 룰을 준수하자는 독일의 리더십만으로는 유로존 내 선진국들과 IMF의 전폭적인 구제 금융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 등의 남유럽에 대한 지원 및 국채 매입 결정도 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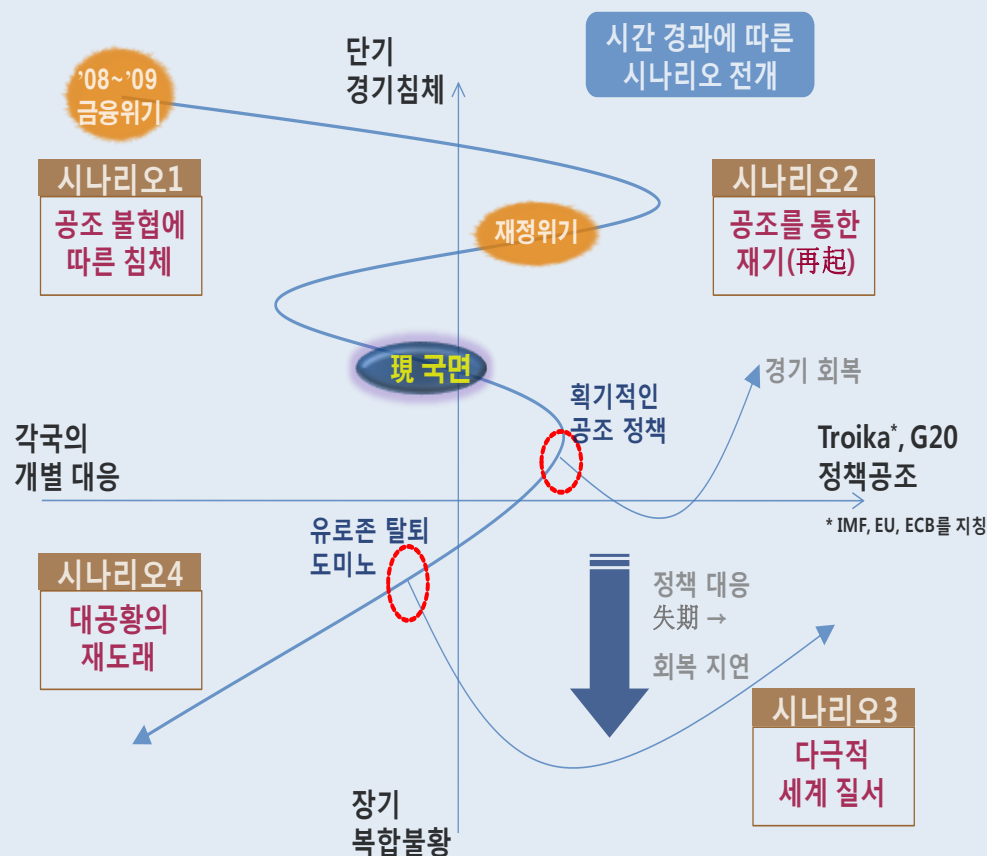
시장 불안이 빠르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유로존 금융동맹의 결성, 유로본드 공동발행을 통한 재정 확충, 중장기 재정긴축 룰 강제와 동시에 성장 패키지의 제시 등 유로존 내 공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러한 조치들은 유로존 내 선진국간 이해 관계가 얹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도 유럽 지도자들이 정책적인 대응에 失期할 경우 세계경기 부진 심화는 물론 불황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로존 내 정책공조가 지연될수록 경기회복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결국 신흥국을 포함한 G20의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단계에 이를 경우 구미의 힘이 축소되고 중국 등 신흥국의 힘이 크게 증대되는 다극적 세계 질서를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IMF를 대신하는 새롭고 강력한 다극적 국제 금융기구 창설(新브레튼우즈 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도 있다. 국제공조마저도 너무 늦어지면서 유로존 탈퇴 도미노가 일어나면 제 2의 금융위기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경기급락 우려와 미 더블딥 리스크, 보호무역주의 및 환율전쟁, 이란발 중동 긴장 고조 등이 맞물릴 경우 대공황에 준하는 장기 금융·실물 복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만일 획기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공조를 통한 세계경제 재기 시나리오'(시나리오2의 약화된 형태)가 현실화된다면 (이 경우 국가부채 수준이 높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하는 데는 수년 이상 걸리겠지만) 내년도 세계경제는 다음과 같은 스토리 전개가 가능하다.

1. 향후 적어도 1~2년 내에는 유로존 위기 지속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유럽국가들의 부채 만기도래가 지속되어 그리스발 위기 재발 가능성이 상존할 것이다. 만일 그리스 탈퇴 등의 사태가 없이 Troika(IMF, EU, ECB)의 구제금융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미국 부동산 경기의 회복, 중국의 연착륙에 힘입어 내년 경기는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 이후 소폭 개선 추세를 보일 것이다.
2. 신흥국들은 상반기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책으로 투자/소비 증대를 도모할 것이고 하반기 이후 선진국 경기의 개선 움직임에 따른 수출 반등 가능성이 높으며 환율을 포함한 국제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화될 것이다.
3. 그러나 세계경제는 이스라엘-이란 전쟁 가능성,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 중국 설비과잉 및 사회불안 리스크 등이 상존하는 데다 재정부채 및 민간부채, 고실업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완만한 '상저하고'형을 보이며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2.4%가 예상된다.

향후 3~5년간 중기 경제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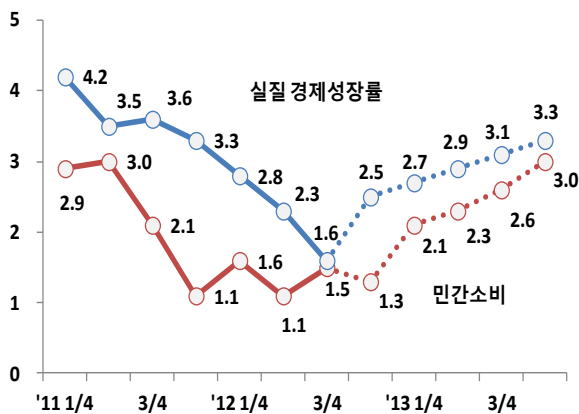


자료 : Global Business Network(GBN; '08.11)의 시나리오를 POSRI가 수정 및 변형. 재정위기 이후까지 확장

2. 국내 경제, 내년에도 부진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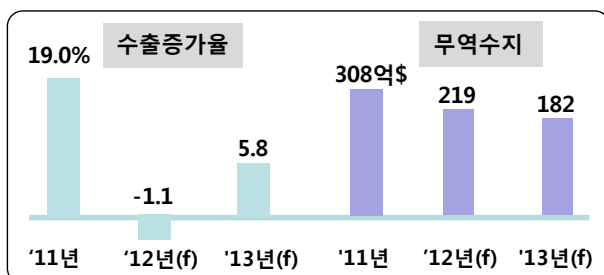
“ 국내 하방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 첫째 수출 급락... 둘째로 소비 부진 지속...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급증 ”

GDP 및 민간소비 전망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출 부진, 무역흑자 감소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국내 경제, 내외수 二重苦

우선 국내적으로 민간소비가 GDP를 하회하고 있는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3분기 1.6% 성장에 그친 국내성장률은 민간소비가 1.5%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1%대 성장은 작년 4분기부터 금년 3분기까지 4분기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편,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과거 3년 평균 52%에 달했던 민간소비가 최근 49%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도 수출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만큼은 아니더라도 2013년에도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이 요원하기 때문에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율에 머물 것이다. 이는 2011년의 19%를 감안하면 기저효과에 의한 반등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무역수지 흑자폭은 금년보다 소폭 줄어 2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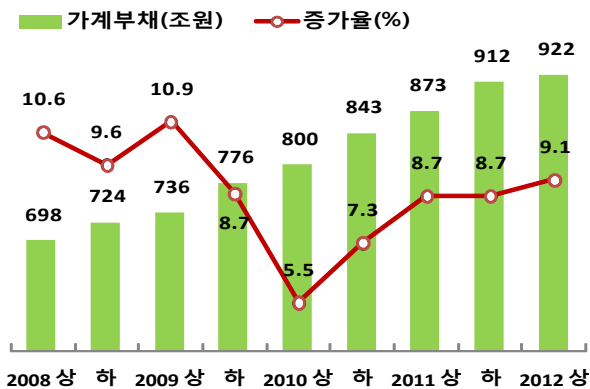
세계 경제 부진 영향과 국내 하방 리스크 상존으로 내년 성장률 3.0%

2013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부진 영향이 지속되는 데다 국내의 하방 리스크로 인해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하방 리스크는 수출 급락, 소비부진, 가계부채 리스크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투자 위축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소비부진 지속이 우려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는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하우스푸어 발생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것도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급증이 국내 경제에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축소되고 가격이 정체 또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중심으로 가계 파산 급증 가능성이 고조될 수 있다. 이는 가계부채발 국내 금융 및 실물의 복합 불황을 촉발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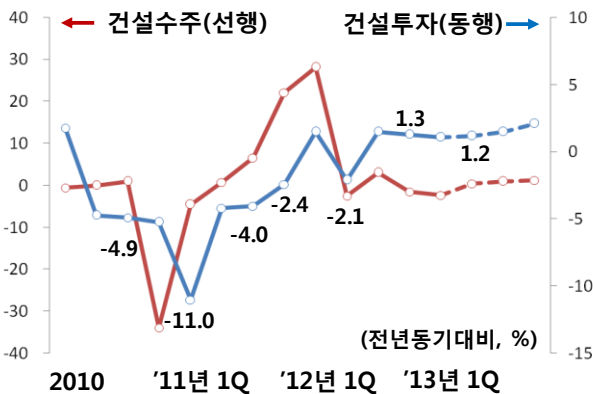
“ 가계부채 문제는 소비 심리를 위축... 공공부채까지 합칠 경우에는 한국도 60%를 상회...”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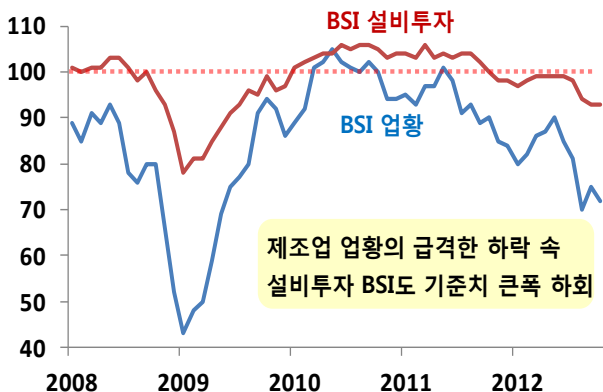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건설수주 및 투자 전망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BSI, 제조업 업황 및 설비투자



자료 : 한국은행

부동산 침체 지속으로 가계부채 부담 가중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여전히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상반기 말에 800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2012년 상반기말에 922조원까지 급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로 보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난다. 같은 기간 증가율은 5.5%에서 9.1%로 거의 두 배로 뛰었다.

가계부채 누증과 함께 가계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2010년 상반기말에 0.61%였던 연체율은 점점 높아져 2012년 9월 말 현재 0.92%에 달한다.

가계부채 증가와 더불어 연체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침체에 기인한다. 이는 현재 주택가격이 구입한 가격 밑으로 하락하면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負의 자산 효과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부진에 빠진 건설투자, 경기 불확실성으로 설비투자도 위축

2013년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침체와 SOC 신규 수주 축소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 투자는 세종시 및 지방이전 신청사 착공 등 비주거용을 중심으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목 투자의 경우, 정부의 SOC 투자 예산이 23.9조원으로 작년 대비 소폭 늘어나는데 그치지만, 전년도에 이미 발주된 민간플랜트 공사 시행으로 전체 건설투자는 1%대 중반의 증가가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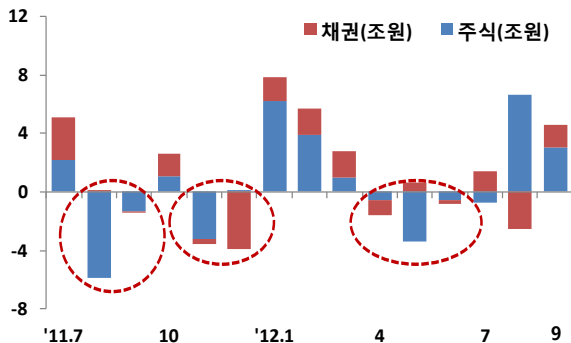
설비투자는 불확실한 기업투자 여건으로 2013년 5%대의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최근 제조업 업황 BSI가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설비투자 BSI도 기준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는데다, 향후에도 상당 기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수출이 한자리 수 증가에 그치고 기업 실적 개선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들은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는데,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투자 위축이 지속된다면 성장을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 급증이 재정위험으로 부상

한국의 경우 정부부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재정절벽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1년 말 현재

“ 유로존 위기 등 대외불안으로
2013년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소폭에 그칠 전망 ”

시장 불안 시 자본유출 반복 가능성



자료 : 금융감독원

2013년 주요 환율 전망

구분	2011	2012(f)	2013(f)
원/달러	1108	1129	1080
달러/유로	1.39	1.28	1.30
엔/달러	80	80	82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북한, 한국·미국·중국과 갈등

북미대화 지지부진

광명성 3호 발사 강행으로 美의 대북불신 가중
北 도발에 대한 강경 태세(한미연합 훈련 강화)

북중 잠재적 갈등

고위급 합의(장성택 방중)에도 개혁개방 시각차이
3차 핵실험 가능성 및 핵보유국 인정 요구
접경지역 마찰 / 친러 등 '중국 구심력' 탈피 노력

남한 국민(3명 대선후보 포함)의 안보 입장 단호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GDP 대비 103%로 높은 수준이고 이탈리아는 120%, 일본은 230%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34%로 아직까지 정부부채 수준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칠 경우 한국도 60%대 후반으로 위험수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높은 공공부채 수준은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한편 중기적 관점에서도 41개 중대형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 부채에 대한 관리가 철실하게 요구된다.

경상수지 흑자 및 자본유입 불구 유로존 위기로 원화 강세는 제한적

2013년에도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실물 측면에서 자본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선진국들의 대규모 양적 완화로 외국인 주식 및 채권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우세하다. 그러나 그리스의 탈퇴 및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요청 등 유로존 위기에 따른 시장 불안 시 자본 유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3년 원/달러 환율은 변동성을 지속하며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1,080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완화가 예상되나, 북한 체제 불안으로 대북 리스크는 상존

북한은 국내적으로 정세 안정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근 리영호 해임, 북한병사 귀순 등 군의 기강 해이가 감지되고 있어 군부를 장악하려 할 것이다. 둘째로 경제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 자율권 부여 등 '6.28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이다. 셋째로 민심 안정에 역점을 둘 것이다.

대내적인 안정에 치중하고 있어 2013년 대북 리스크는 소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미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북-중간 잠재적 갈등이 크고 3차 핵실험 우려로 대화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현 대선 후보들의 대북 정책 공약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소 완화되고 남북 경협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II. 세계 경제

“ 선진국 부진 심화, 신흥국 제한적 회복 ”

- 세계 경기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5대 리스크로 2013년에도 부진한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유로존 재정위기, 미국 재정절벽 등 재정 리스크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신흥국은 경기부양 및 내수확대에 힘입어 성장세가 소폭 개선되겠으나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미국은 재정 지출 축소로 성장률 하락이 예상되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은 경기 침체가 지속될 전망. 일본은 지진복구 수요 감소로 성장세 하락 전망
- 중국은 지도부 교체 이후 경기 부양 효과가 점차 나타남에 따라 2013년 7%대 후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른 긴축 완화 및 내수 확대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외자 유입으로 5%대의 고성장이 전망되며, MENA지역은 원유 수요 둔화로 성장률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1. 선진국.....14

- (1) 미국..... 14
- (2) 유로존 16
- (3) 일본..... 18

2. 신흥국.....19

- (1) 중국..... 19
- (2) 동남아시아 22
- (3) 아프리카·MENA 25
- (4) 러시아·CIS 29
- (5) 브라질·중남미 31

1. 선진국

(1)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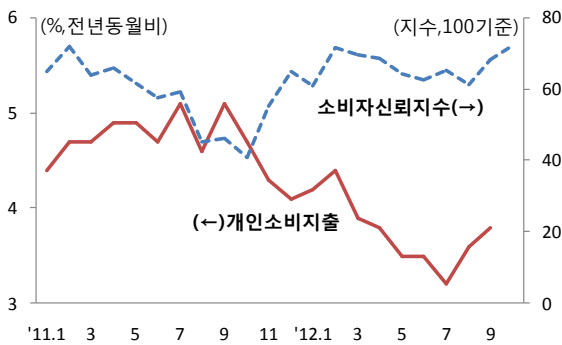
“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 내년 도래할 재정절벽 사태에 대한 우려는 미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 재정절벽 영향으로 정부지출 감소 불가피

미 성장률은 상반기에 이어 3분기 2.0%로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다. 고용 등 내수부진과 더불어 유로존 침체 등 글로벌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면서 대외부문이 위축되었다. 여기에 10월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북부를 강타하여 4분기 성장률은 1% 내외로 급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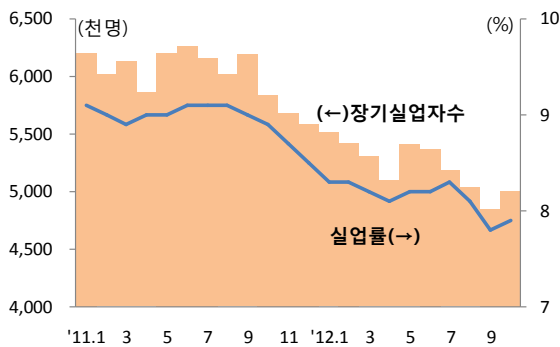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도래할 재정절벽 사태는 미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년 초 여야간에 재정절벽 사태를 방지할 극적인 합의점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출 감소 등 긴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인소비지출과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 국제금융센터

실업률과 비농업 일자리수



자료 : 국제금융센터, 美 노동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소비 부진 지속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부문은 3분기에도 부진을 지속했다. 전분기 대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상승했으나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했다. 아직 가계 부문 디레버라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로존 위기와 재정절벽 사태 등 대내외 요인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개인소비 지출은 2월 4.4%(전년대비)를 정점으로 7월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9월 들어 3.8%로 반등했다. 그러나 이는 소득 증가가 아닌 저축률 하락에 기인한 것이어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리지표인 소비자 신뢰지수도 10월 72.2로 큰 폭의 반등을 보였지만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어서 부진이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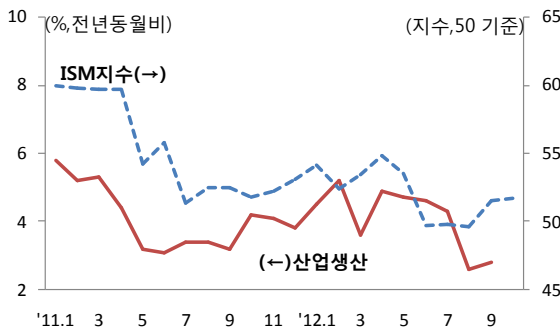
일부 고용지표 개선 불구 장기실업자 고수준 유지

11개월째 8%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9월 처음으로 7%대(7.8%)로 하락했다. 2009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10월에 7.9%로 다시 상승했지만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현 실업률 수준은 금융위기 이전 대비 크게 높은 수준이며 고용개선 속도는 매우 느린 상황이다.

특히 장기 실업자의 고용부문 개선이 답보 상태다. 실업자 가운데 27주 이상 장기실업자 비중은 2009년 말 이후 40%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5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던 장기실업자수도 10월 500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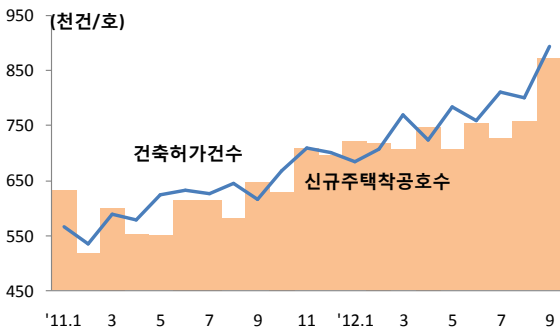
“미 기업투자 또한 유로존·중국 등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내년에 도래할 재정절벽 사태로 위축 양상을 보이고 있다.”

ISM지수와 산업생산지수



자료 : 국제금융센터

건축허가건수와 신규주택착공호수



자료 : 국제금융센터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11년	'12년	'13년
경제성장률	1.8%	2.0%	1.8%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 투자 마저 위축

올해 초 활발했던 기업 활동이 하반기 들어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 경기침체,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로 대외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내년 초에 직면할 재정절벽 사태로 기업들이 투자를 잠정 보류하거나 중단했기 때문이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0월에는 전년대비 2.8%로 둔화되었다. 설비기동률도 2분기 평균 78.9%에서 3분기에는 78.5%로 하락했다. 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ISM 제조업 지수는 4월 이후 둔화 국면을 지속하다가 9~10월 들어 50 이상으로 다소 반등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ISM 지수 반등은 같은 기간 FRB의 QE3(양적완화) 발표로 인한 기대심리가 반영된데다 50 초반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택 경기회복, 실물경기와 연결고리가 아직 취약

올 초부터 지속된 주택 경기 회복세가 FRB 초저금리 기간 연장과 QE3(양적완화)에 따른 모기지 채권 매입 발표로 가시화되고 있다. 건축허가 건수는 금년 1월 68.4천건을 기록한 이후 9월 89천 건으로 상승했다. 신규주택 착공 호수도 9월 87만호로 전년대비 34.7%나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건축허가 등 주택 경기지표가 매우 느리게 회복되는 초기 국면이며, 물량 측면에서도 금융위기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기회복의 연결고리로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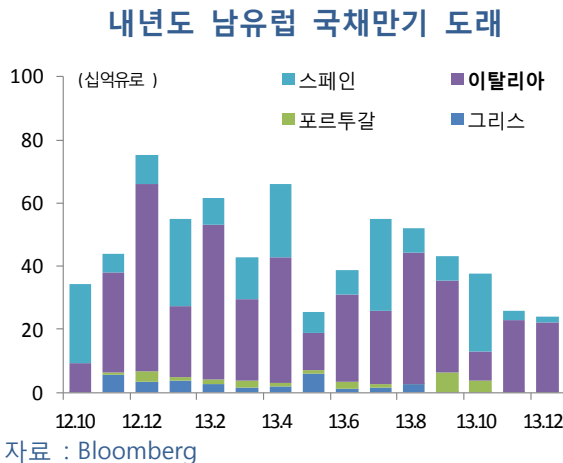
내년, 금년보다 하락한 1.8% 경제성장 전망

내년 미국 경제는 유로존 재정위기 장기화와 재정절벽 등으로 소비와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양적완화 효과는 소비심리 개선과 주택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정책 효과가 지난 1, 2차 양적완화보다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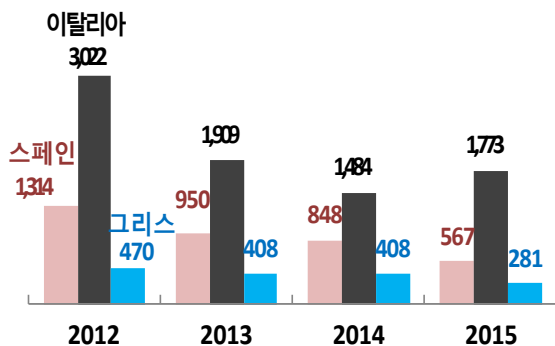
또한 내년 상반기에 집중될 재정지출 감소와 감세 혜택 종료가 미국 경제의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초까지 여야간에 재정절벽 사태에 대응할 극적인 타협점을 찾더라도 일부 재정긴축 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지출 감소로 인한 고용 둔화 등 성장세 둔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미국 경제성장률은 금년보다 낮은 1.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유로존

“ ECB 의 무제한 국채매입,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 통과 등은 일단 긍정적 평가 ”



중장기 남유럽 만기도래 국채규모



11월 그리스의 추가 긴축안 통과로 단기적으로 고비는 넘긴 듯

그리스 연립정부가 지난 9월 트로이카(ECB, IMF, EU)에 약속했던 115억 유로 규모의 예산 삭감 계획이 정치권 및 노동자 단체의 반발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10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는 315억 유로의 구제금융 집행이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그리스 의회는 진통 끝에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11/12)시키면서 추가 구제금융 지원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유로존 노동자의 동맹 파업과 납세자의 반발 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집행 잔여 분량(440억 유로 이상)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리스 위기는 일단 단기적인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듯 보인다.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등 안정화 노력도 시장에서는 긍정적 평가

남유럽 위기 장기화에 따른 유로존 경제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은 무제한 국채 직매입을 실시했다. (9/6) 매입 국채는 1~3년 단기국채이며 민간채권자가 우려했던 ECB의 선순위 우선권도 양보하여 시장에서 일단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0.75%의 기준금리도 동결하여 단기적으로 부양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위기대응을 위해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유럽안정화기구(ESM)도 첫 이사회를 실시 (10/8) 하는 등 위기 대응 노력을 가시화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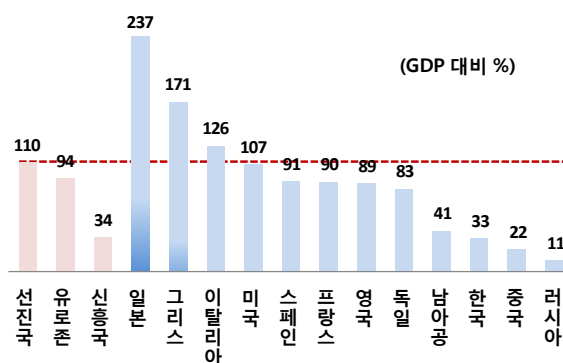
그러나 남유럽 국채만기 도래 및 ESM 가용 규모 등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 지속

내년 상반기 남유럽국의 만기도래 채권은 월 500억 유로 안팎의 엄청난 규모여서 정상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국채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금리 상승은 각국 채무 상환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2014년에 GDP의 19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 부담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정상적

“ 내년에는 주요국 국가부채 급증
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전망
이다. ”

국가별 정부부채 규모 (GDP 대비 %)



자료 : IMF ('12.10)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11년	'12년	'13년
경제성장률	1.5%	-0.5%	-0.5%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인 국가 경영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위기 대응을 위한 ESM의 가용 규모가 5,000억 유로 수준이며, 만약 스페인이 1,000억 유로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가용 규모가 축소되고 2015년까지 남유럽 만기도래 국채분을 차환(roll-over)하지 않을 경우 현 수준의 ESM 규모로는 역부족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13년에도 국가부채 누증 및 정책공조 불협 화음이 예상돼 유로존 성장률은 -0.5% 전망

주요국 정부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그리스 37.5%p, 스페인 24.8%p, 이탈리아 15.3%p 급등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유로존의 평균 정부부채 규모도 2012년 말에 GDP 대비 94%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수년간 유로존 주요국의 정부부채 규모는 남유럽 실물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및 경기부양책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은 재정긴축 영향으로 내년 성장률도 마이너스에 머물 전망이다.

올해 10월 EU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중 은행 통합감독 기구를 출범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2013년 독일의 총선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은행동맹은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재정 통합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어려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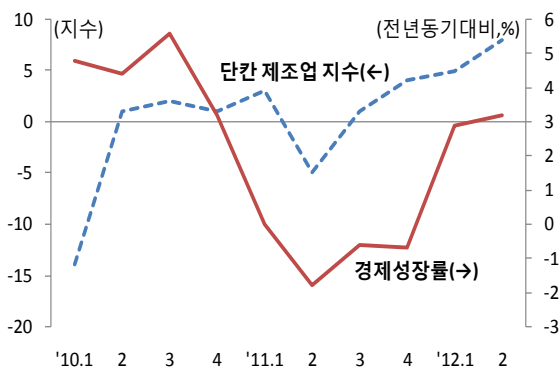
ECB의 유로본드(공동국채) 발행도 재정이 양호한 독일 등 일부 유로존 선진국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남유럽 위기 해소를 위한 유로존 내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유로존 위기의 심화가 우려된다.

(3)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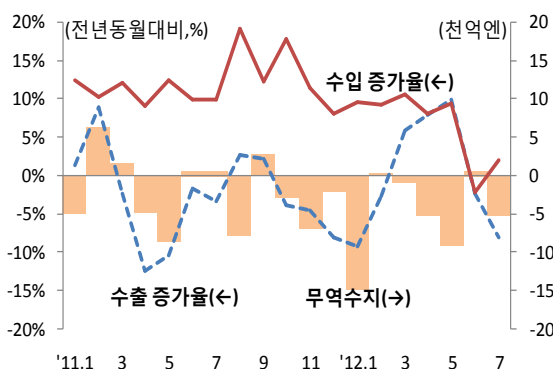
“ 내년에도 선진국 경기 둔화 및 엔高 지속 영향 등으로 경제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

경제성장률과 단칸 제조업 지수



자료 : 국제금융센터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자료 : 일본 재무성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11년	'12년	'13년
경제성장률	-0.7%	1.8%	0.5%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3분기 GDP -3.5% 성장 등 실적 악화로 내수 경기 부양 지속

3분기 경기 실적 하락은 수출이 급감한데다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이 끝나면서 내수경기마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즉, 상반기에 지진 복구 수요로 인해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지진 피해 복구 수요 및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 효과가 소진되어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었다.

이에 일본은행은 자산매입기금을 기존 70조엔→91조엔으로 21조엔 증액시키고 정책금리를 0~0.1%로 동결시키는 경기 부양 정책을 단행했다. (9/19, 10/30)

그러나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엔高 및 연속 4개월 수출 감소 등 대외여건은 지속 악화

엔高 현상은 유로존 불안 지속 및 달러 약세 영향으로 나타났는데 엔高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특히 9월 수출은 중일 영토분쟁 등의 영향으로 전년비 -10.3%의 급격한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의 對중국 수출비중이 1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對중국 수출증가율이 -14.1%로 급락함으로써 중일 영토 분쟁으로 인한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은 엔高 현상에 따른 수입재 가격 하락으로 4.1%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가 5,586억엔을 기록하는 등 대외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내년에는 선진국 경기 둔화 및 엔高 지속 영향 등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될 전망

수출 여건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라 일본은행은 엔高 현상 저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로존 등 선진국 경제 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엔高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출 등 대외 여건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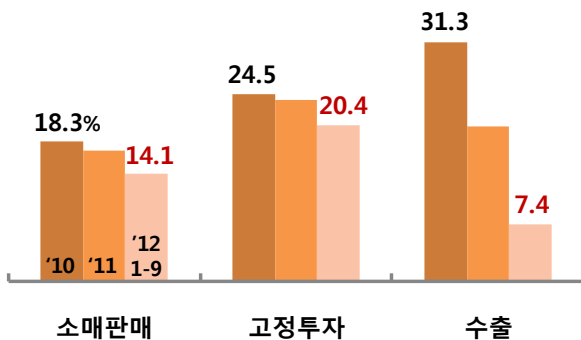
또한 지진피해 복구 수요 등 2012년 경기 회복을 이끌었던 주요 내수 회복 요인들이 소진됨에 따라 내년에는 경기 회복세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2. 신흥국

(1) 중국

“ 경제성장률이 7 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중국 경기의 하방 위험(downside risk) 압력이 커지고 있다.”

소매판매, 고정투자, 수출 증가세 추이



자료 : CEIC

GDP성장률 7분기 연속 하락, 주요 실물지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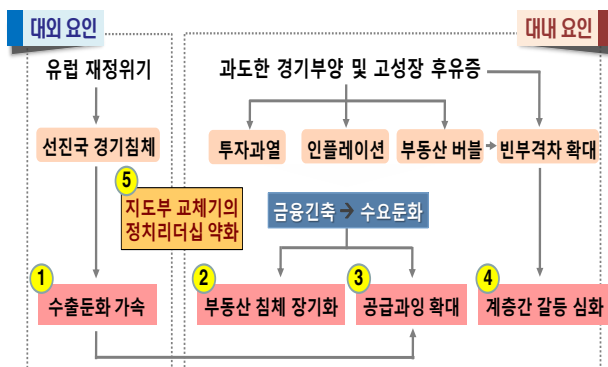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비 7.4%로 정부 당국의 올해 성장 목표인 7.5% 아래로 내려가면서 하방 위험(downside risk)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 3분기 GDP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며, 2010년 1분기의 12.1%를 정점으로 7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의 주요 실물 경제지표의 9월 성적표는 경기하강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의 동반 침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9월까지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14.1% 증가해 2009년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었고, 고정투자도 제조업 투자의 증가세 둔화로 전년동기비 20.4%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수출은 유로존 재정위기의 악화에 따른 유로존 경기침체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1~9월까지 전년동기비 7.4% 늘어나는데 만족해야 했다. 유로존 경기침체로 중국 전체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EU로의 수출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9월 중 對EU 수출은 전년 동월비 12.7%나 감소했다. 9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비 9.2%로, 8월(8.9%) 증가율에 비해 다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내외외환 직면 속 주요 위험요인들 내재

중국의 현 경제상황은 내수회복 지연과 수출부진 등 內憂外患에 직면한 가운데 중국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들이 내재돼 있다. 경기둔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험 요인들이 동반 현실화될 경우 중국경제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게 되는 이른바 경착륙(hard land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선진국 경기침체로 수출 둔화 지속

첫 번째 위험요인은 대외 요인으로서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가속이다. 중국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에서 42%를 차지하는 등 수출 비중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수출 경기의 지속적인 악화가 우려된다. 특히 EU는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유로존의 장기 불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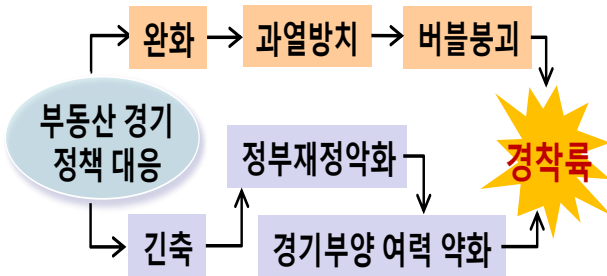
“ 중국경제는 內憂外患에 직면한 가운데 수출둔화 가속화,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 주요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 ”

중국 수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EU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당분간 중국 수출 회복세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중국 수출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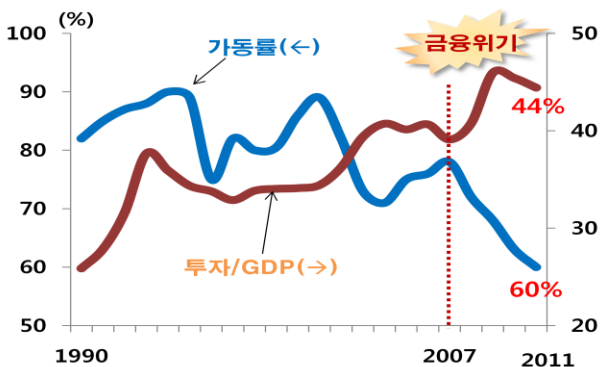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인해 정책 딜레마에 직면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다. 2008년 말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쓴데 따른 자산 버블, 특히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해 정부당국은 부동산 규제를 지속해왔다. 부동산 경기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토지매입은 9월 말 현재 전년동기 대비 16.5% 감소율을 기록했다. 7월의 24% 감소율을 저점으로 8월과 9월에 이어 석달 연속 16%대의 감소율이 이어지며 하락세가 둔화될 조짐이 보이는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한편 부동산 개발투자는 지난해 1~9월 32.0%의 증가율을 기록한데 반해, 올 들어 9월까지의 15.4% 증가율로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부동산 긴축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해 당국의 부동산 투기억제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의 부동산 정책 대응은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자칫 과열로 이어져 버블붕괴 가능성이 있고, 긴축기조를 지속하면 재정 악화로 부양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정책대응의 딜레마



투자/GDP 비중과 산업 평균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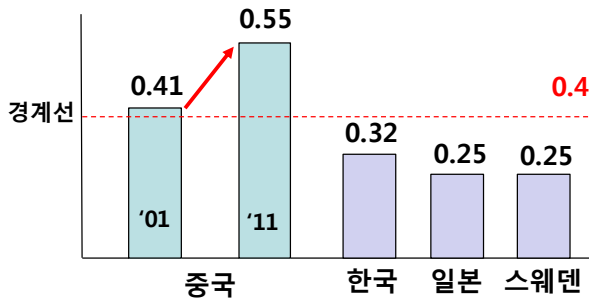
자료 : CEIC

과도한 투자의존형 성장으로 공급과잉 확대

세 번째 위험요인은 과도한 투자의존 성장으로 인한 공급과잉 확대다. 공급과잉 문제는 그 동안 중국정부가 양적인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정책을 추구해온 데 기인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투자 유치도 원인이다. 2011년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44%로 상당히 높은 반면 중국의 산업 평균 가동률은 60%로 떨어졌다. 문제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산업은 물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기준 조선과 철강 산업의 경우 설비 과잉률은 각각 50%와 34%에 이르고 있다. 특히 철강의 생산능력이 계속 확충되고 있다. 중국의 철강 생산능력은 연간 9억 톤에 이르며 수요 대비 과잉 생산능력이 2억 톤 가량이다.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의 급격한 둔화는 중국 산업의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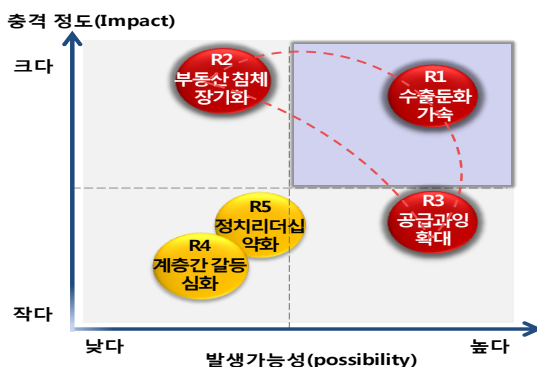
“ 내년 경제성장률은 7%대 후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로 수출둔화가 가속화되어 공급과잉이 확대되고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는 복합불황 시 경착륙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주요국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주 : 숫자가 클수록 소득불평등도 심화

리스크별 발생가능성과 충격 정도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빈부격차 확대로 계층간 갈등 심화

빈부격차 확대로 인한 계층간 갈등 심화도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중국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이 하위 10% 계층의 65배로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중국 소득 불균형은 이미 위험수준에 도달했다. 중국의 都農間 소득 격차는 1995년의 2.7배에서 2010년에는 3.3배로 확대되었고,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警戒선(0.4)을 넘어 지난 해에는 0.5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경기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사회불만이 커지면서 집단소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2003년 6만 건에서 지난 해에는 20만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도부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우려

11월 8일 개최된 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10년 만에 시진핑-리커창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등장했다. 이로 인한 정치리더십 약화 위기도 현 시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다.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 태자당·상하이방 연합과 공청단과간 갈등으로 정책관련 의사결정 시 적절한 대응 시점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진타오의 공청단과는 정치개혁, 분배와 성장의 균형을 강조하는 반면 상하이방과 태자당은 정치적 보수주의, 성장 우선 정책을 추구하는 등 정치적 입장과 경제발전 노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 지도부의 정치국 상무위원 7인 구성을 둘러싸고 계파간 견제가 나타났던 만큼 향후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등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3년 중국 7.9% 성장 전망. 경착륙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지속적인 리스크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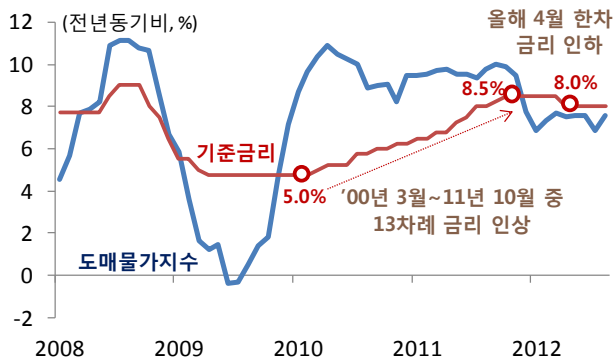
이상에서 논의된 주요 리스크 중에서 최대 위험요인은 대외 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 가속화라 할 수 있다. 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경제는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지도부 교체 이후 경기 부양 효과가 점차 나타남에 따라 2013년 경제성장률은 7%대 후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기 등 글로벌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출 급락으로 공급과잉 문제가 확대될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를 심화시켜 복합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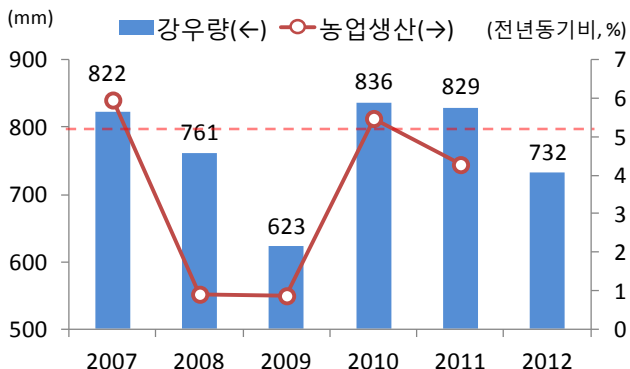
“ 인도, 재정건전화 정책 지속, 투자개혁 지연, 반복적 기상 이변에 따른 농업생산 위축으로, 내년 성장률은 6%대 초반에 그칠 전망.”

인도 도매물가와 기준금리



자료 : Bloomberg

몬순 시기 강우량과 농업생산



주 : 매해 6월1일 ~ 9월12일 중 강우량

자료 : 인도기상청, Bloomberg

인도, 최근 경기 둔화세 일부 완화

인도는 올 2분기 성장률이 5.5%를 기록하여 5분기 만에 성장률이 소폭 상승했다. 최근 인플레이 우려가 완화되자 인도 정부는 긴축 정책을 완화했으며, 경기 하강세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 4월 2년 만에 기준금리를 8.5%에서 8.0%로 0.5%p 인하하였으며, 정부소비 증가율도 1분기 4.1%에서 2분기 9.0%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소비, 투자, 수출 등 민간부문의 부진 지속으로 경기 회복 모멘텀 회복은 불확실한 실정이다. 2분기에 경제성장률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1분기 6.1%에서 2분기 4.0%로, 투자는 1분기 3.6%에서 2분기 0.7%로 지속 둔화되었다. 또한 EU, 중국,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수요 부진으로 2분기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2.1%)를 기록하였다.

경상적자, 기상이변, 인플레이가 경제회복에 걸림돌

신용평가사 등 해외기관들은 인도의 경상수지 적자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S&P, Fitch는 인도의 외화유동성,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인도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9%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몬순 시기의 강우량 감소가 농업생산 및 인플레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강우량이 평년 대비 8% 가량 감소함에 따라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농업생산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진적 회복 가능성 불구, 2013년 인도 경제 성장률은 6%대 초반에 그칠 전망

인도의 경기선행지수(OECD)가 지난해 말부터 매우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올해 2~3분기 중 경기 저점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재정건전화 정책 지속에 따른 공공부문 지출 억제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투자 관련 개혁 지연으로 투자 부문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강우량 부족 등 기상 이변에 따른 농업 부문 위축과 인플레이 가능성으로, 2013년 성장률은 6%대 초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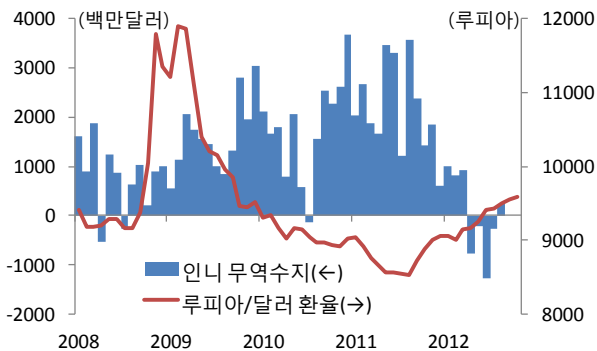
“인니, 최근 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경기 둔화 후 소폭 회복 가능성.”

인도네시아, 최근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 유지

2012년 2분기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은 6.4%로 아시아 국가 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 이와 같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고정투자(12.3%)와 정부소비(6.7%)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소비도 5%대의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에 달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최근 4% 대로 유지되는 등 물가 불안이 해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인니 정부의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는 각각 GDP 대비 1.6%, 25%로 재정부문의 리스크도 크지 않으며, 재정부문의 경기 부양 여력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인니 무역수지 및 루피아/달러 환율



자료 : Bloomberg

무역수지 악화 및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자본 유출은 인니 경제의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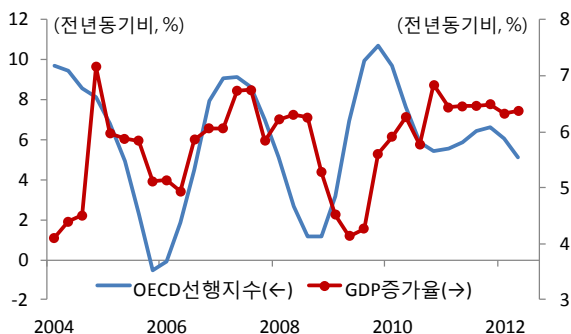
유로존 재정위기,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3분기 중 무역수지도 1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물교역 부분뿐만 아니라 자본수지 또한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루피아 환율은 지난해 중반부터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은행 등에 외화 융자한도 확대를 요청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외환위기 가능성은 낮으나,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높다.

2013년 대외여건 악화로 성장률 개선은 어려우나, 견조한 소비 등 경제 펀더멘털은 유지

단기적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 및 무역수지 적자 등에 따라 경기회복세는 매우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행지수가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까지 인니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기관들은 올해 6%대 초반, 내년 6%대 중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GDP의 56%를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고정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외환 보유액이 소폭 줄어들었으나 외채 규모가 크지 않아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무디스는 올해 초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인니 선행지수와 경제성장률



자료 : Bloomberg,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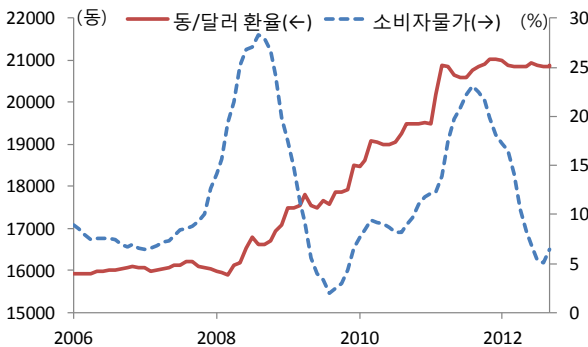
“ 베트남, 지난해부터의 총수요 억제 효과가 올해 환율의 추가 상승 제한, 물가 상승세 하락,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모습 ”

베트남, 적극적인 금융긴축으로 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무역수지도 소폭 개선 조짐

지난해 8월 23%까지 급등하며 베트남 경제의 안정을 방해 하던 소비자물가 상승세는 최근 5~6% 대로 하락했으며, 베트남 중앙은행은 올해 정책금리를 10%까지 내렸다. 이에 따라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올해 1분기 4.0%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하여 3분기에는 4.7%까지 상승했다.

대외수요 감소에 따른 수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 억제로 무역수지가 하반기 들어 흑자로 개선되었으며, 외환보유액도 증가하여 대외건전성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다.

베트남 소비자물가와 동/달러 환율



자료 : Bloomberg

은행 부실화 우려 등 금융부분 리스크는 지속

최근 들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은행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베트남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9년 2.2%에서 작년 말에는 3.1%로 상승했으며, 올해 5월에는 4.5%까지 치솟았다.

베트남 의회는 은행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DP의 10%에 달하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IMF에 긴급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은행 및 국영기업 등의 구조개혁이 지연될 경우 리스크가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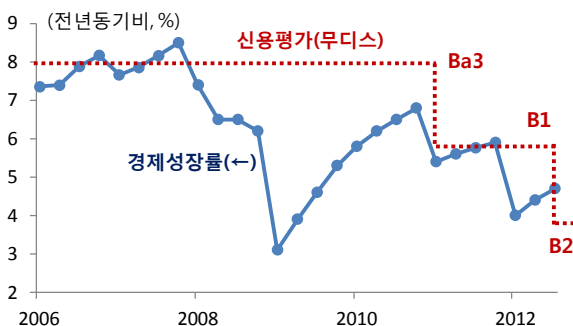
베트남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 등으로 2013년 경제 성장률은 5%대 중반으로 소폭 상승할 전망

작년부터의 총수요 억제 정책 효과가 올해 ▶환율 추가 상승 제한, ▶물가 상승세 하락,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3월 이후의 정책 금리 인하로 베트남 경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 무디스, S&P 등이 베트남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으나,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어서 추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올해 들어 동/달러 환율은 무역수지 개선 등으로 20,900동대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약세를 지속하는 등 환리스크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베트남 신용평가와 경제성장률



자료 : Bloomberg

(3) 아프리카·MENA

“ 2013 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전망은 EU 의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자원과 외국투자유입으로 5%대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

아프리카, 세계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高成長 기조 지속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최근까지 꾸준한 성장을 지속했다. 특히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EU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4~5%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 5.1%, 2012년 5.4%의 성장을 보였으며, 2013년에도 5.4%의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별로 보면 아프리카 최대 경제 규모를 지닌 남아공의 경제 전망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다. 2012년 초 IMF는 2013년 남아공 경제성장률을 4.2%로 예상했으나 최근 3.4%로 하향 조정했다. 남아공 거시경제의 최대 불안 요인은 높은 실업률과 공기업 독과점 형태의 생산시장 구조, 그리고 강성노조로 인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전력부족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가나는 원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 생산과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2013년 7.7%의 높은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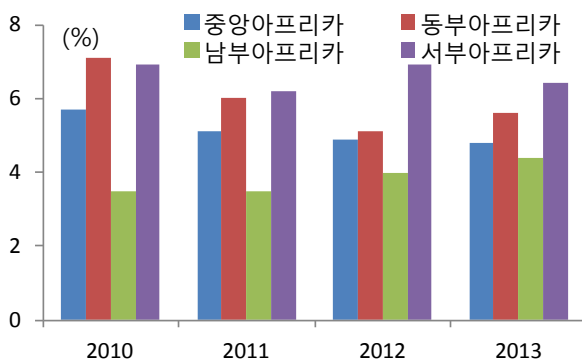
아프리카 최대 원유 생산국인 나이지리아 역시 고유가 혜택으로 2013년 6.6%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정치 불안정이 나이지리아 경제의 최대 리스크다.

지역별로는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로 투자가 유입되고 있는 동부지역의 경제성장률이 높음

동부 아프리카는 중국, 인도 그리고 메이저 석유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 유입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경제성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 수단의 독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케냐의 경우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건설 등이 예정되어 있어 인프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21년간 장기 집권한 제나위 멜레스 수상이 8월 20일 사망함으로써 정치가 불안해질 경우 경제성장에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동부 아프리카에 이어 서부 아프리카도 2013년 6%대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가 및 광물가격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지리아와 가나, 코트디부아르 같은 원유 생산국과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철광석 보유 국가들은 높은 에너지 및 자원 가격 덕택에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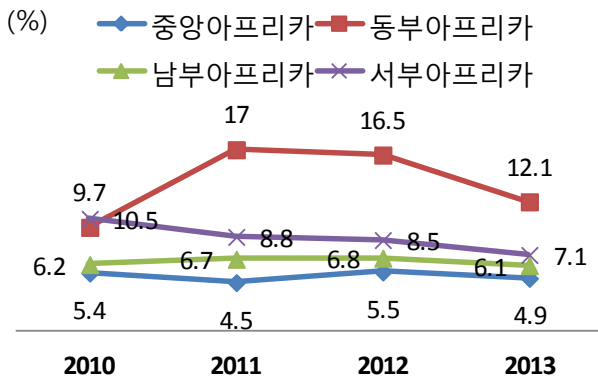
아프리카 지역별 경제 성장률



자료 : African Development Bank

“ 대규모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동부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안정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지역별 인플레이션 수준



출처 : IMF, World Bank

2013년에 남부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는 남아공의 더딘 경제회복에 기인한다. 남아공을 제외한 앙골라(8%), 모잠비크(7.9%), 짐바브웨(5.1%) 등은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하향 안정전망

2012년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3년에는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식료품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가제품 및 환율의 안정화로 물가수준은 전년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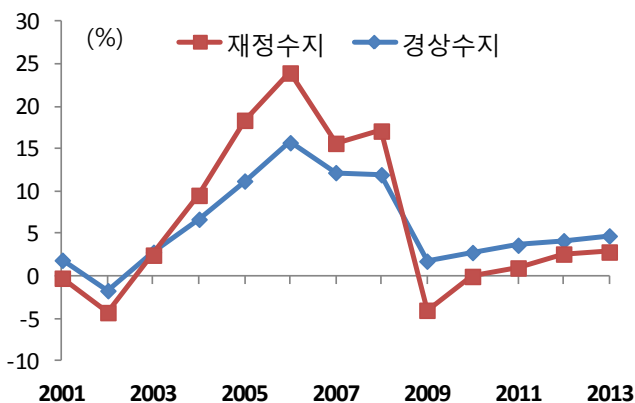
대규모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동부아프리카는 여전히 12%대의 고물가 수준이 우려되나 다른 지역은 7% 이하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앙아프리카는 DR콩고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한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탓에 4%대 수준이 예상된다.

재정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관리 필요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GDP 대비 낮은 재정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비효율적인 조세행정에 기인하고 있지만, 주로 광물 및 에너지 자원 등 1차 산업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ODA와 FDI로 인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서 재정문제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 중 10개국 만이 GDP대비 재정적자가 5%를 넘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적자가 아프리카의 경제의 심각한 문제로 부상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남아공 등 일부 국가들은 지속적인 대외무역 적자와 빈곤층 흑인들에 대한 과도한 복지예산 지출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 12월 집권당 의장 선거와 최근 광산 토지은행의 국유화 논쟁 등으로 남아공 정부는 흑인 빈민들을 달래기 위해 복지부문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또한 자원 빈국들의 경우 자원 부국들에 비해 재정이 취약하여 식료품이나 원유가 상승이 이어지면 언제든 재정이 취약해질 위험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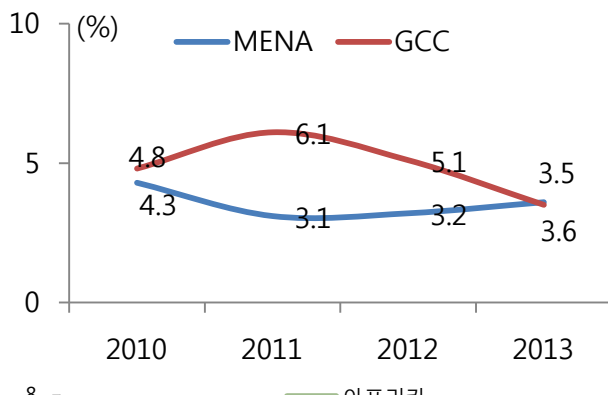
아프리카 GDP 대비 재정현황



출처 : IMF, World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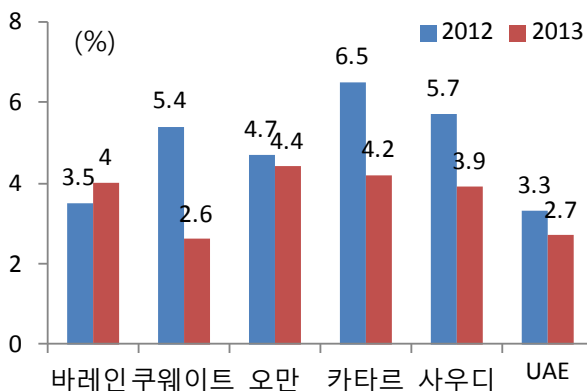
“ 북아프리카는 정치적 안정을 찾음에 따라 2013 년 경제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비아의 경우 16%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

MENA 및 GCC 경제성장률



자료 : MEED

GCC국가들의 경제 성장률



자료 : African Development Bank

북아프리카 지역은 정치 변동이 안정을 찾음에 따라 2013년에는 고성장이 예상됨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 민주화 운동으로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던 국가들의 정치가 빠르게 안정됨에 따라 북아프리카의 2013년 경제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리비아의 경우, 2012년 117% 성장에 이어 2013년 16% 성장이 예상된다(IMF). 또한 내전으로 중단되었던 원유생산이 2012년 하반기에 내전 이전 수준인 일일 170만 배럴 생산에 도달하고 2015년에는 일일 200만 배럴 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이밖에 이집트는 2013년 5.3%의 성장이 예상되는데,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하락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민생문제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집트의 경우 행정부와 군부간의 정치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불안정이 재발할 수 있어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도 있다. 튀니지의 경우 2013년 4.8%의 경제성장이 전망되지만 유럽경제 침체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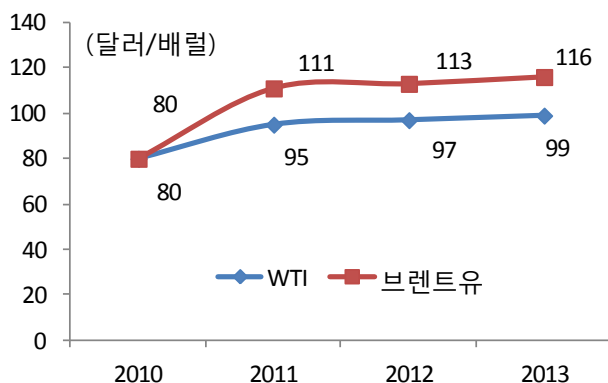
정치적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시리아는 현재 내전으로 인해 2012년 -5.9% 성장에 이어 2013년에도 -5.5% 성장이 예상된다. 이란 역시 핵무기 제조와 관련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2013년에 -3.1%의 성장이 전망된다. 이라크는 전후 복구 프로젝트 등 대규모 공공사업 활성화와 원유생산 정상화에 힘입어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2013년 이라크 성장률이 10.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MENA 지역 중 최대 경제권역인 GCC국가들은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 예상

GCC국가들의 2013년 경제전망은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영향으로 2012년에 비해 저성장이 예상된다. 2012년에 6.5% 고성장을 보인 카타르의 성장세가 4.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요 수출품인 천연가스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우디 역시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원유수요 감소 및 유가 하락으로 2012년 5.7% 성장에서 2013년에는 3.9%의 성장이 예상되며,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쿠웨이트도 2012년 5.4% 성장에서 2013년에는 2.6% 성장이 전망된다. 바레인의 경우 2011년 이후 MENA 지역에 영향을 주었던 민주화 운동의 여파로 정치,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어 2012년까지 경제성장이 저조했다. 하지만 2012년 하반기 이후 정치, 사회의 안정화와 사우디의 적극적 지원으로 2013년에는 2012년(3.5%)보다 높은 4.0% 성장이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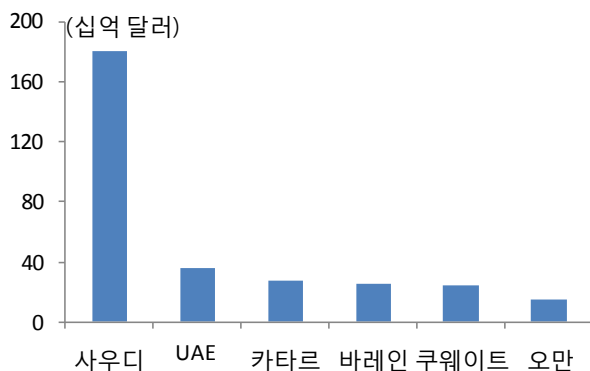
“ MENA 지역 경제는 국제원유 수요와 유가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해 대규모 재정을 집행하고 있다. ”

국제유가 추이



자료 : EIA, World Bank

GCC국가들의 프로젝트 발주액



자료 : MEED, African Economic Outlook

MENA 지역은 산유국들이 많아 글로벌 원유 수요 및 가격이 경제성장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MENA 19개 회원국 중 13개 국가가 산유국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가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 따라서 2013년에도 국제원유 수요 및 원유가가 MENA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에는 고유가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의 경제침체로 유가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산유국들의 경제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튀니지와 요르단 등 MENA 원유 수입국들은 산유국들에 비해 2013년도 성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GCC 국가들은 인프라 정비 및 주택건설 사업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할 것으로 전망

2012년 GCC국가들의 프로젝트 발주액은 전년에 비해 20% 증가한 2,900억 달러에 달했다. 2013년에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우디 등 2011년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국민들의 불만 무마를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주택 보급 향상 등 복지정책을 위해 사회간접시설들에 대한 프로젝트 발주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GCC국가들은 산업 다각화 노력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건설자재 산업과 식품가공 산업, 관광 그리고 금융허브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우디는 5대 클러스터(자동차, 금속가공, 플라스틱 및 포장, 가전제품, 태양열)를 선정하여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GCC 국가 외에도 이라크가 1,600억 달러, 리비아가 1,200억 달러 등 향후 MENA지역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러시아·C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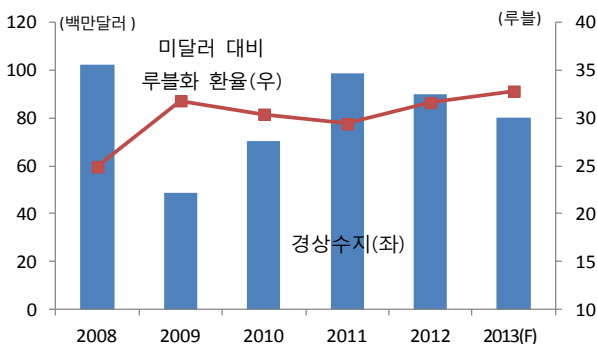
“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보합에 따라 경상수지 등 안정적 거시기반을 유지하겠지만, 최대 교역국 EU 경제의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성장률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

러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러시아 통계위원회

러시아 경상수지와 루블화 환율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러시아 중앙은행

러시아, 거시 기반 안정적이나 EU 경기 부진으로 내년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3.8% 전망

2013년 러시아 국내 경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투자와 교역의 최대 파트너인 EU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2012년과 비슷한 3.8%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러시아 대외 경제관계에 있어 EU와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EU의 FDI 비중은 3/4 수준일 정도로 러시아 경제는 유럽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유로존 사태가 근본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며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러시아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천연가스,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줄며 무역수지와 환율이 타격을 받게 되고, 투자 유입 감소는 러시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세를 보일 국제 원자재 가격에 힘입어 약 8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8%)를 나타낼 전망이다. 또한 전년 대비 18% 이상 늘어난 650억 달러의 FDI 유입, GDP 대비 30% 수준의 낮은 외채 비중을 유지하며 안정적 거시 기반을 이어갈 전망이다.

급격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을 전망

최근 산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원자재 기반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변화에 따라 루블화 환율,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기반이 크게 흔들리곤 한다. 작년 7월 러시아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94.4달러로 떨어지자(6월 유가 108.3달러) 7월 무역수지가 전달 대비 34억 달러가 감소한 사실이 이러한 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제유가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로 인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러시아 정부에서는 2013년 평균 유가를 2012년보다 10% 가량이나 낮은 배럴당 100~105달러 수준으로 가정하여 2013년 성장률을 3.5%로 잡고 있다. 유가와 성장률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정치적 이유가 다분히 숨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5월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본인이 공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려는 성향이 있다.

“ 중국 경제의 반등, 러시아 성장세 지속, 국제 원자재 가격 강보합 전망에 따라 중앙아시아 경제는 전년 보다 0.5%p 높은 5.5%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

중앙아 6개국 성장률

국가	2010	2011	2012	2013
카자흐	7.3	7.5	5.5	5.7
아제르	5.0	.01	3.9	2.7
우즈벡	8.5	8.3	7.4	6.5
투르크멘	9.2	14.7	8.0	7.7
타지크	6.5	7.4	6.8	6.0
키르기즈	-0.5	5.7	1.0	8.5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ADB, IMF

따라서 목표치는 다소 보수적으로 잡고, 대신 목표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호소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IMF, OECD 등 대표적 경제분석기관에서 내놓은 2013년 러시아 경제성장률 전망은 러시아 정부가 제시한 3.5%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IMF 3.8%, OECD 4.1 %).

중앙아시아 경제의 관건은 러시아와 중국 경기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유로존 불확실성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점에서 중앙아시아 경제는 유로존 경기 보다는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대 교역 및 투자국 러시아와 인접국 중국 경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인다.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로는 2013년 5.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2년 성장률 5.0%에 비해 0.5%p 상승한 수치인데, 이러한 전망의 주요 근거로는 첫째, 중국 경제의 재반등, 둘째, 러시아 경제의 성장세 지속, 셋째, 국제 원자재 가격의 강보합세를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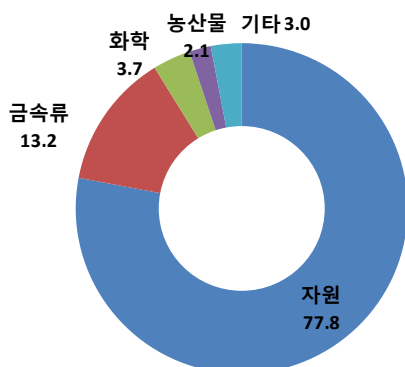
역내 최대 경제국 카자흐스탄 2013년 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5.7% 전망

역내 최대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국제 유가의 강보합세 유지에 따라 안정적 경상수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곡물 가격 상승도 카자흐스탄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계 6위 밀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은 최근 30%가 넘는 급격한 농업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2012년 1,220만 톤의 곡물을 수출했고, 2013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곡물 수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원유 수출 의존도와 2008년 금융위기로 타격을 받았던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카자흐스탄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자흐스탄과 함께 역내 자원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역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현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2012년 카자흐스탄 수출 구조(%)



자료 : 카자흐스탄 통계위원회

(5) 브라질·중남미

“ (브라질) 내년은 2014년 월드컵 개최 준비라는 대형 호재가 있는 만큼, 정부의 인프라 투자 외에 민간 부분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2013년 브라질 경제는 3.8%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 ”

브라질 경기부양책

(단위: 헤알)

시기	규모	주요 내용
'12. 4	650	자동차, 전자 등 15개 산업 감세 (12.9월 25개 업종으로 확대) 공공투자 확대
'12. 5	27	자동차 공업세 7% 인하 트럭, 버스 구매 대출금리 인하/할부기간 연장 금융거래세율(OF) 인하(25→15%)
'12. 6	84	정부 구매 확대 공적자금 대출이자 인하(6→55%)
'12. 8	1,330	연방 정부의 州정부의 부채 기한 연장 고속도로 및 철도 민영화로 인프라 개선 (9개 고속도로 7,500km, 12개 철도 10,000km)

자료 : 브라질 재무부 및 언론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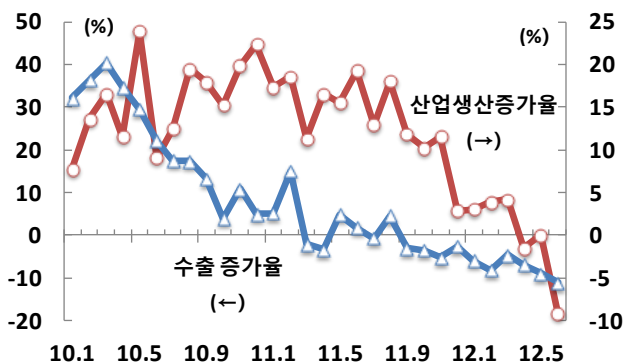
브라질, 부진했던 2012년 딛고 강력한 경기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등 기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을 제외하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브라질은 과거 단기 성장 후 장기 침체라는 악몽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이미 기준 금리를 역대 최저인 7.25%까지 내려 민간 부분의 투자와 내수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부터는 정부 구매도 크게 확대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민간 부분의 투자 부진과 더딘 제조업 경쟁력 회복으로 인해 최근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빠르게 늘고 있는 수입도 경상수지 적자 폭을 확대하고 있어 브라질 정부의 고민거리이다.

FDI 유입은 안정적, 지속적인 성장 위해서는 민간 부분의 꾸준한 투자 필요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브라질의 FDI 유입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2년에 들어 그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지만, 꾸준한 유입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내년은 2014년 월드컵 개최 준비라는 대형 호재가 있는 만큼, 정부의 인프라 투자 외에 민간 부분의 투자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2013년 브라질 경제는 3.8%의 안정적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유럽의 재정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경우, 브라질은 올림픽 개최라는 또 다른 대형 호재가 기다리는 2016년까지 연평균 4% 이상의 높은 성장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 수출 및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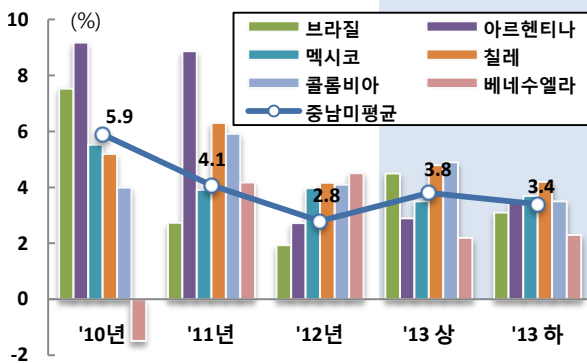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및 통계청

헤알화 약세, 제조업 수출 경쟁력 확보에 유리

브라질 정부는 최근까지도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제고의 어려움 중 하나로 선진국들의 금융완화 정책에서 비롯된 투기 자본의 유입과 이로 인한 헤알화 절상을 불평해왔다. 그러나 10회 연속 기준 금리 인하, 금융 거래세 도입, 관세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11분기 연속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마침내 헤알화가 약세로 전환되었다. 이제 환율 변수가 사라진 만큼 브라질의 산업 경쟁력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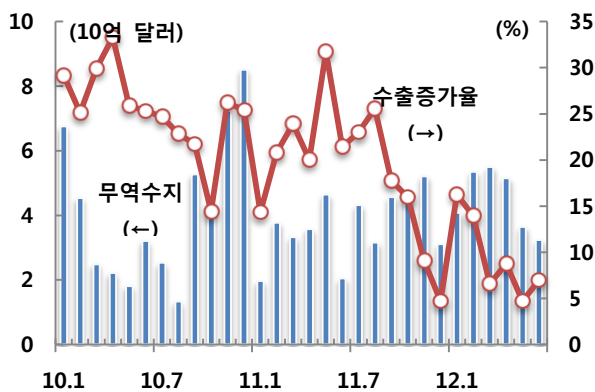
“(중남미) 2013년에는 대부분의 정치 이슈들이 해소되는 만큼 중남미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년 중남미 경제 성장률 전망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소

중남미 수출 증가율 및 무역수지 변화



주: 브라질 제외, 멕시코 포함
자료: WorldBank, OECD 외

선진국으로의 도약까지는 시간 필요

그러나 불행히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우선 브라질 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1차 상품 수출이 2012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45.4%나 감소하였다. 정부가 경제 구조 다변화를 위해 집중 육성하는 제조업도 환율 수혜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정부가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마련한 국산부품 사용의무 규정으로 인해 해외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꺼리는 탓에 성장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영 석유회사인 Petrobras사의 심해저 암염하층 유전개발 계획이 설비 부품의 국산화 지연으로 투자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남미, 2012년은 정치 이슈로 아쉬움이 많은 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하면, 올해 3~5%대의 무난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중남미는 정치적 이슈들로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상반기에는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의 잇따른 국유화로 자원 민족주의 논쟁을 촉발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이어 제6차 미주정상회의에서는 태평양 동맹국들(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과 남미공동시장 국가들(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간 무역에 대한 입장 차로 갈등을 야기했다. 하반기에는 파라과이 대통령 탄핵을 틈타 파라과이를 배제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베네수엘라 가입 승인으로 급기야 역내 갈등마저 촉발시켰다. 또한, 7월 대선으로 정권이 바뀐 멕시코와 10월 대선을 치른 베네수엘라는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느라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

2013년은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 기대, 본격 투자 유치 위해서는 먼저 시장에 신뢰 보여줄 필요

2013년에는 대부분의 정치 이슈들이 해소된 만큼 중남미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멕시코의 재도약이 기대된다. ‘마길라도라’산업(보세가공업)의 전통 강자인 멕시코는 미국을 소비 시장으로 하는 제조업의 탄탄한 성장세가 중국을 대체할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원자재 수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어떻게 시장에 믿음을 심어주며, 투자자들을 유치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Ⅲ. 국내 경제

“ 2013 년 국내 경제 3% 내외 저성장 전망 ”

- 국내 경제, 선진·신흥국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와 내수 위축으로 내년 연평균 3.0% 성장에 그칠 전망
- 수출입 : 미국, 일본 등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유로존 해결이 불투명함에 따라 수출이 소폭 회복에 그치고 불황형 무역흑자는 지속되나 그 폭은 축소될 전망
- 설비투자 : 내외수 부진 및 기업 투자심리 위축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 예상
- 건설투자 : 부동산 침체 지속, 재정여력 약화에 따른 토목 감소 우려 등으로 1% 대 낮은 증가율 지속 예상
- 민간소비 : 기저효과 불구,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 국내 경제 성장률 : 글로벌 수요 둔화 지속에 따른 수출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 투자 부진 예상. 더욱이 가계부채 부담 지속으로 인한 가계발 금융과 실물의 복합 불황 시 성장률 하락세 심화 우려
- 원/달러 환율 : 미 3차 양적완화, 경상흑자에 따른 자본 유입 불구 유로존 위기로 등락이 예상되며 환율 하락은 계속되나 그 폭은 제한적일 전망
- 금리 :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3% 내외 수준 전망

1. 경기	34
2. 소비/고용/물가.....	36
3. 고정투자.....	39
4. 대외거래.....	41
5. 금융시장.....	42
6. 대응방안.....	45

1.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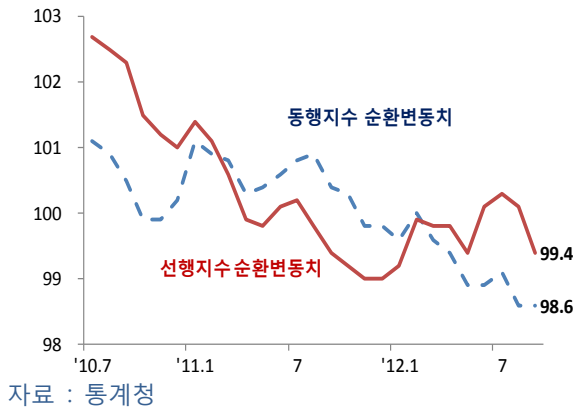
“ 2 분기가 예상보다 크게 낮은 2.3%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3 분기에는 수출 감소 영향으로 1.6%까지 하락, 경기 저점이 예상된다.”

경기 저점 3분기로 회복력 약화

국내 경제는 당초 2분기가 저점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미국 경기도 부진함에 따라 중국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2분기 수출 증가율이 겨우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고 3분기 수출은 감소세로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2분기가 예상보다 크게 낮은 2.3%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3분기에는 수출 감소 영향으로 1.5%까지 하락, 경기 저점이 예상된다.

선행지수 및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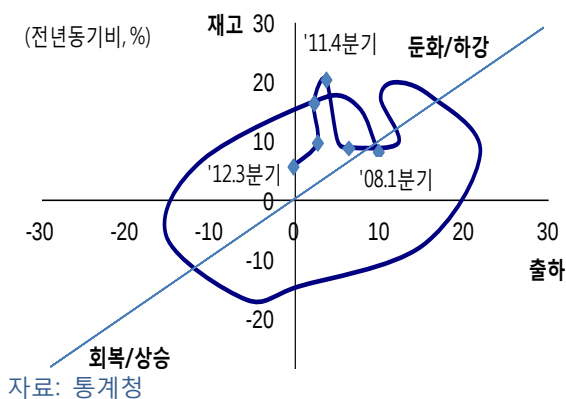


선행지수 반등세 약화, 동행지수 하락세

최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ECB의 국채 매입으로 완화되는 듯 보였지만 국내 경기 둔화세는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동행지수의 경우 2월 이후 9월까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7월에는 전월 대비 0.2p 소폭 상승했으나 8, 9월 재차 하락을 보였다.

향후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선행지수의 경우 100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9월 4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선행지수의 움직임으로 보아도 2013년 상반기까지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페인·이탈리아의 재정 불안 요인과 함께 미국, 중국의 경기 회복력이 미약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제조업 생산자 재고 및 출하지수



제조업 경기, 6분기 연속 둔화 국면 제조업 생산자 재고 및 출하지수를 보면, 2011년 2분기부터 하강 국면에 진입한 이후 올 3분기까지 6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다. 2분기에 경기가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였으나 유로존 및 중국의 침체로 국내 수출이 급감함에 따라 3분기 경기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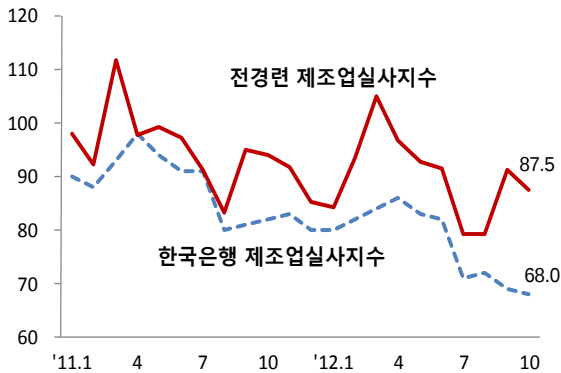
“ 2013 년의 경우에는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 국내 GDP 성장률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부진 지속

제조업 생산지수는 자동차 생산이 금년 3월부터 한 자릿수 증가율로 떨어진 후 7월에는 올 들어 두번째의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경우,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부진이 2012년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 여력 하락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이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은 유로존, 중국, 미국을 향한 해외 수출 증가율 둔화로 인해 자동차 생산이 금년 말까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확대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조업 경기실사지수



자료: 통계청

수출 회복 요원, 제조업 경기 하락 지속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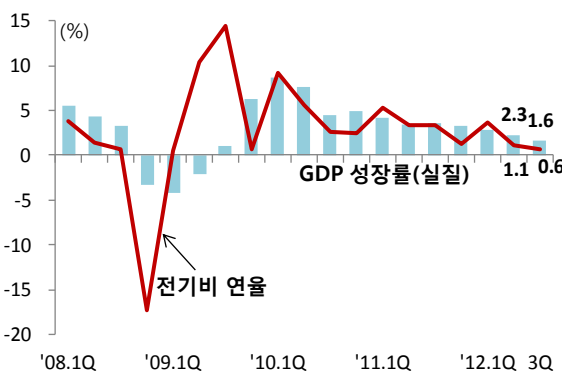
한국은행 제조업 실사지수는 10월 68까지 떨어지면서 체감 경기 악화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한편 전경련 제조업 실사지수의 경우 7,8월 70대 후반으로 급락한 이후 9월 반짝 급등했으나 10월 재차 8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향후 수출 회복이 요원한 상황으로 제조업 생산 둔화는 금년 말은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 성장률은 내년 3.0% 저성장 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2012년 3분기 1.6%로 2009년 3분기 1.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의 경우, 2011년 2분기 이래 0%대 성장이 6분기째 계속되고 있다. 4분기에도 회복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연평균으로 볼 때 국내 성장률은 2.3%를 기록할 전망이다. 전기대비 GDP 성장률 연율로 살펴보면, 2012년 3분기 0.6%까지 하락하였다.

2013년의 경우 중국 등 신흥국 성장률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여 국내 GDP 성장률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2011년 3.6%보다도 크게 낮은 수치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실질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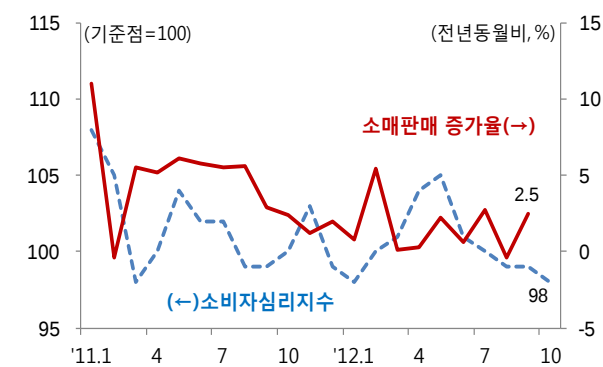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2. 소비·고용·물가

“ 소비는 소매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고용의 경우에는 수출 부진이 제조업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

소매판매 및 소비자동향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민간소비 증가율 및 실업률 전망

	'11년	'12년		'13년(f)
		상	하(f)	
민간소비	2.3	1.4	1.4	2.5
실업률	3.4	3.6	3.0	3.3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소비 둔화 두드러지고 고용 불안 재점화

소비는 소매판매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이다. 특히 중산층 이하의 소비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부동산 침체에 따른 마이너스 효과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양산도 소비 위축 요인이다.

고용의 경우 수출 부진이 제조업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신규 채용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고용과급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부진이 2013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점진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심리 위축 가시화로 판매 악화 전망

소매판매의 경우 8월 -0.4%까지 하락한 후, 9월에는 내구재 판매 증가 등이 일부 개선되어 2.5%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향후 소비를 판단할 수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의 경우, 2012년 상반기까지 기준치를 겨우 유지했지만 8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했다.

한편 고용 부문을 보면, 2012년 들어 6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신규취업자수가 40만 명 이상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9월 2%대까지 떨어져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업률이 낮게 집계되고 있으며,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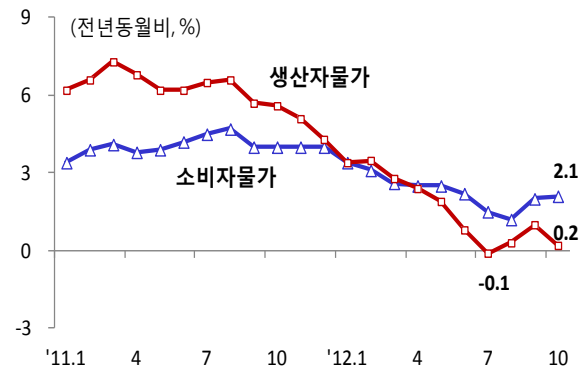
2013년 민간소비 침체, 실업률 금년 수준

2013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5%로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기 저성장 및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여전히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실업률의 경우도 후행지표인 점을 감안한다면 2013년 상반기부터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2013년 연평균 실업률은 3.3%로 금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 2013 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으로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2012 년 대비 높아진 3.0%로 예상된다. ”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소비자물가 전망

	'11년	'12년		'13년(f)
		상	하(f)	
소비자물가	4.0	2.7	2.1	3.0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소비자물가, 급등 리스크 미약

금년 소비자물가는 세계 경제 침체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미미함에 따라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다. 특히 생산자물가의 경우, 2012년 7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소비자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2013년에는 세계 경기 침체가 지속되지만 유가의 점진적인 상승세로 인해 2012년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물가 0% 근접... 소비자물가는 미약한 상승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및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7, 8월 1%대까지 하락했다. 특히 8월 1.2%는 2000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물가가 안정됐다는 좋은 시그널이라기보다는 소비심리 악화로 소비자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9, 10월은 식료품, 전세 가격 등으로 2%대로 다시 상승했다.

한편 생산자물가의 경우에는 7월 -0.1%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을 보일 정도로 세계 수요가 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림수산물과 함께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가격 하락이 주원인이다. 9월 이후에는 석유제품 등의 상승으로 9월 1.0%, 10월 0.2%를 기록했으나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3% 내외로 완만한 상승

2013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으로 수입물가 및 생산자물가가 점진 상승하면서 2012년 2.4% 보다 높은 3.0%가 예상된다.

더욱이 2012년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 인해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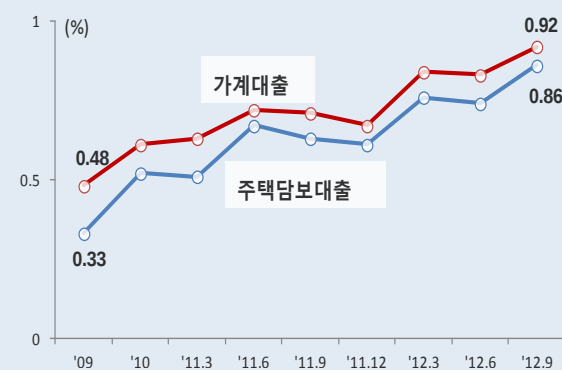
가계 및 주택 대출 리스크 지속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이후 GDP 및 소득증가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어 내수를 더욱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경상 GDP는 연 7.3%의 증가율을 보였고 가처분소득의 경우에는 5.7% 증가했으나 가계부채는 11.7%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가계부채가 8.1% 증가했으나 경상 GDP와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각각 5.4%, 4.8%에 그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0년 86.6%에서 2011년 89.2%로 높아졌다. 가처분소득의 경우 같은 기간 158.0%에서 163.7%로 높아졌다. 소득 증가보다 빠른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12년 9월말 현재 0.92%까지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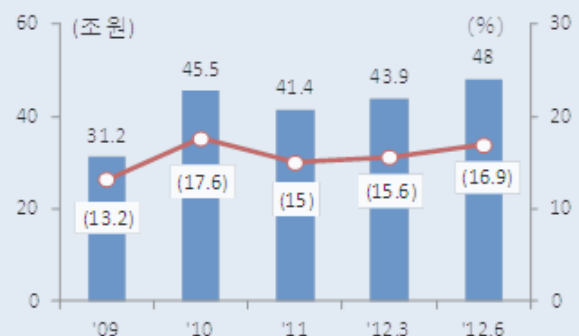
가계대출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3%에서 0.83%까지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한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09년 64%에서 2012년 7월말 67%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주택가격 증가세가 하락하거나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경우 주택 가격 대비 대출 비율(LTV)을 서울의 경우 50%, 지방의 경우 60%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물인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최근 3개월 만에 LTV 기준 60%를 넘는 초과 부실위험 주택대출이 48조원까지 증가했으며,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말 15%에서 2012년 6월말 16.9%까지 상승했다.

2013년에도 가계부채 및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잡은 가계대출에 대해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원금 상환 유예를 추진하고,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LTV 상한 기준을 유지해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은행 가계 및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LTV 초과 부실위험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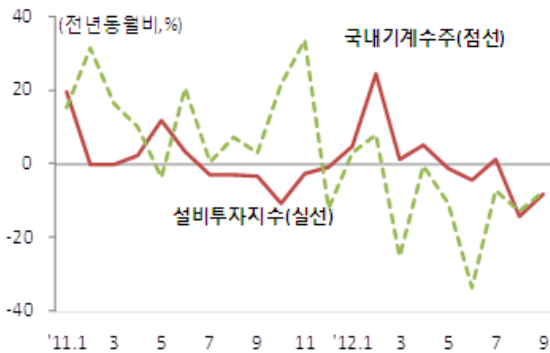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괄호 안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비중

3. 고정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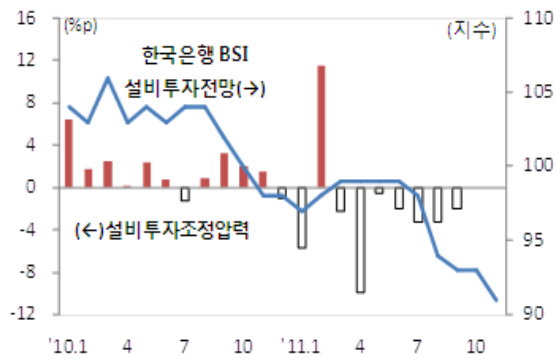
“ 유로존 재정불안, 美 재정절벽, 부채한도 협상 난항 등 글로벌 수요 둔화세 지속 예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요 업종별 설비투자지수



자료 : 통계청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설비투자 BSI(한은)



자료 : 통계청

주 : 설비투자조정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 증가율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

	'11년	'12년		'13년(f)
		상	하(f)	
설비투자	3.7	2.3	4.0	5.8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

올해 2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민간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유로존 등 일부 불안요인 장기화 양상은 투자 성향을 더욱 위험 회피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

내년에도 유로존 재정불안, 미국 재정절벽 및 부채한도 협상 난항 등 글로벌 수요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투자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설비투자는 2분기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3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4.3%로 2분기 이후 하락 양상이 지속되었다.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유로존 실물경기 침체가 가시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회복세 둔화,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지수는 5월 이후 기계류 투자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기계수주 또한 3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내며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11월 기업투자심리(BSI전망)는 2009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91을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100 선을 하회했다. 특히, 향후 설비투자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설비투자 조정압력도 지난 3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국내 설비투자 축소 압력이 점차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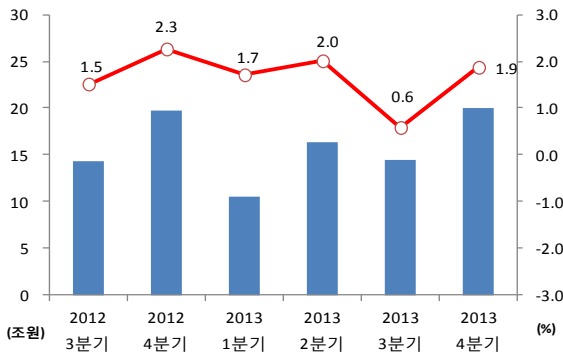
국내 설비투자는 5.8% 증가에 그칠 전망

내년에도 그리스 탈퇴 가능성 등 유로존 잠재불안 요인과 미국의 재정절벽 사태에 따른 부채상환선 재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불안 등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설비투자는 2013년 5.8%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 지속으로 국내경제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잠재성장률이 3% 내외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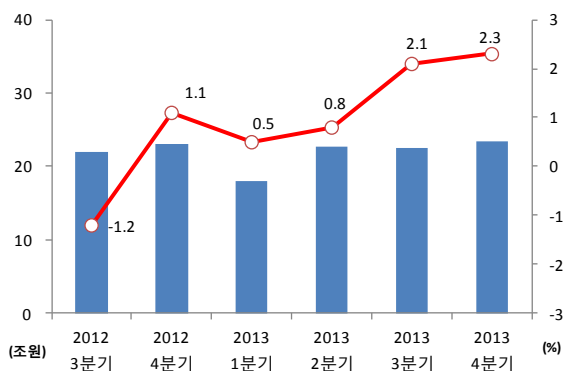
“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와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공공 부문 모두 건설투자 둔화될 전망 ”

토목투자 동향 및 전망



자료 : 통계청

건축투자 동향 및 전망



자료 : 통계청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

	'11년	'12년		'13년(f)
		상	하(f)	
건설투자	-5.0	-0.6	0.7	1.5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토목투자, 신규 수주 축소로 회복세 미약

토목투자는 2012년 상반기에 4대강 사업, 여수 EXPO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준공되고 재정건전성 기조 유지를 위한 SOC 재정투자 축소로 감소했으나, 2012년 하반기에는 기수 주한 도로/교량, 발전플랜트 사업이 투자로 전환되면서 소폭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SOC 예산이 2012년 22.6조원에서 2013년 23.9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복지예산 증가로 세출조정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2013년 토목투자는 SOC 예산이 신규 수주가 아닌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되는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기발주한 발전 플랜트 물량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투자, 주택시장 장기 침체로 부진 지속

주택투자는 선행지표인 2012년 주택수주가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2012년 상반기에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던 비주거용 건축투자는 하반기 이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부문은 위축되나 세종시 및 지방이전 신청사 건축착공 등 공공부문 투자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3년 건축투자는 공공부문 발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침체로 인한 비주거용 건축투자 감소, 지방 주택경기 둔화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3년 경제 저성장 기조와 재정여력 약화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지연

2012년 건설투자는 3분기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 소폭회복 되면서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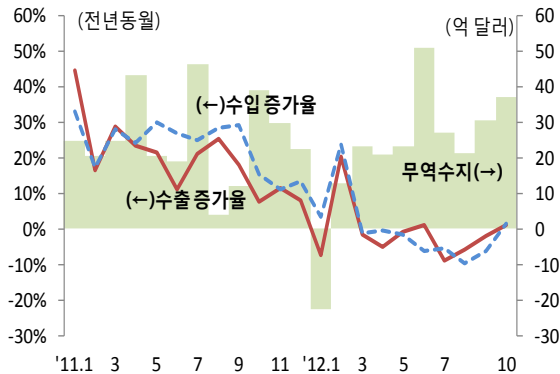
2013년에도 국내 경제 둔화, 재정건전성 강화와 장기적인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공공 부문 모두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1%대 중반의 소폭 증가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외 경제 성장 둔화, 주택시장 침체,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PF 사업 위축,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따른 SOC 투자 감소 등의 대내외 환경에서 장기적인 부진에 빠진 건설투자는 2013년에도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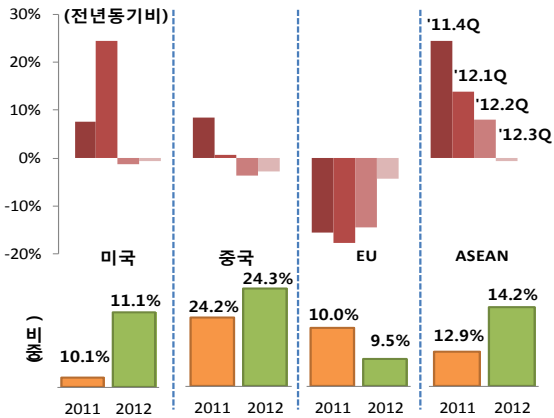
4. 대외거래

“ 내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환율전쟁, 보호무역 등 외부환경 악화로 금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입 및 무역수지



지역별 수출비중 및 증가율



수출입 및 무역수지 전망

	'11년	'12년		'13년(f)
		상	하(f)	
수출증가율	19.0	0.6	-2.2	5.8
수입증가율	23.3	2.4	-2.4	7.7
무역수지 (십억 달러)	30.8	108	156	182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내년에도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지속

유로존 경기침체 지속과 미국의 경기회복 부진에 이어 중국마저 하반기 들어 경기둔화 양상을 보이며 국내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원자재 등 국내 수입 수요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는 낮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적완화 등 글로벌 유동성 확대,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 움직임 등 대외 수출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환율전쟁, 보호무역 등 외부환경 악화로 금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부진 지속, 신흥국 수요 회복 미약 예상

금년 들어 수출입 모두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7월 수출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장 큰 -8.7%(전년동기비) 하락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 역시 2월을 정점으로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인 후 10월 1.7%로 겨우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입 모두 빠른 감소세가 나타난 것은 유로존 경기침체와 미국 경기부진, 그리고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마저 경기가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3분기 들어 2분기 양(+)의 수출 증가율을 나타내던 동남아시아(ASEAN) 지역도 전년동기대비 -0.7%로 하락하였다.

내년 수출 증가율 한 자릿수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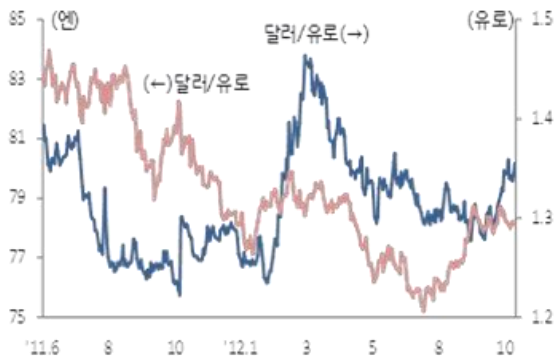
향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수출은 내년 5.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수입 부문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약 7.7%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외 수출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시행으로 환율 갈등, 원자재 가격상승 등 가격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 신흥국 모두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보호무역 장치를 강화함에 따라 이들 요인들이 향후 수출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금융시장

“ 향후 유로존 위기 잔존으로 달러/유로화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달러는 무역수지 적자, 정부부채 등으로 완만한 엔화 약세 움직임이 예상된다.”

달러/유로 및 엔/달러 환율



자료 : 한국은행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유로존	미국	일본
발표일	9/6	9/11~12	9/19 10/30
내용	무제한 국채매입	모기지증권 월 \$400억 매입	자산매입 기금규모확대 (총 91조엔)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달러/유로, 엔/달러 전망

	'11년	'12년		'13년 (f)
		상	하(f)	
달러/유로	1.39	1.30	1.26	1.30
엔/달러	79	80	80	82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유로존 위기 잔존으로 유로화 약세 지속

지난 7월 말 ECB 총재의 유로존 구제를 위한 시장개입 발언, 9월 무제한 국채매입 선언 이후 유로존 위기가 완화되면서 유로화 약세 움직임이 둔화되었다.

엔/달러는 일본 중앙은행의 2차례에 걸친 엔화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엔화자산에 대한 지속적 수요와 유럽 및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조치 등으로 70엔 후반대의 강세 기조를 이어갔다.

향후 유로존 위기 잔존으로 달러/유로화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엔/달러는 무역수지 적자, 정부부채 등으로 완만한 엔화 약세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로존, 일본 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9월 중 유럽 중앙은행은 위기국가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불안하던 유로존 위기는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Fed도 고용시장 회복을 목적으로 MBS 무제한 매입의사를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였다.

반면 일본은행은 엔화 약세를 목적으로 2차례에 걸친 자산 매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2,4월과 같은 엔화약세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 일본경제가 금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여 점차적으로 엔화의 소폭 약세가 전망된다.

유로화 약세 지속, 엔화 강세는 소폭 완화 전망

유로화는 ECB의 적극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탈퇴 가능성 및 스페인 재정불안 등 상시 위기 요인이 잔존할 뿐 아니라 유로존 위기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침체마저 겪고 있어 유로화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엔화는 무역수지 적자, 소비세 인상, 재정건전화 필요성, 일본 정치권의 중앙은행에 대한 압력 등으로 70엔대 후반의 엔고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엔/달러 환율은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 82엔/달러가 전망된다.

“ 9 월 ECB 의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 불구, 유럽 재정위기 관련해서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2013 년 상반기까지 등락이 지속될 것이다. ”

원/엔 및 원/달러 환율



자료 : 한국은행

원/달러 전망

	'11년	'12년		'13년(f)
		상	하(f)	
원/달러	1,106	1,142	1,116	1,080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원/달러 하락세 주춤할 전망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 및 국내 주식시장 안정으로 말미암아 201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월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유럽 재정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2013년 상반기까지 환율 등락이 지속될 것이다.

유럽 불안 요인, 원화 강세 제한 예상

원/달러 환율은 2012년 7월 이후 9월 초순까지 1,130원 내외로 정체되다가 9월 ECB의 국채 매입, 미국의 3차 양적완화 발표 등으로 10월말 심리적 지지선인 1,100원 이하로 떨어졌다.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지만 스페인 등 남유럽 국채 만기도래와 같은 유럽의 불안 요인이 가시화될 때마다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100엔 환율의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올 들어서도 엔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9월 이후 일본 은행의 양적완화로 소폭 약세를 보이면서 원/100엔은 10월 1,300원대로 진입했으나 대외 불안요인 상존으로 하락세는 제한될 것이다.

원/달러, 2013년 1,080원 내외

2013년에도 유럽 재정위기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수준은 아니지만 PIGS 국가의 국채 만기 도래 때마다 원/달러 환율은 재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2년과는 달리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상 흑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달러 하락을 제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2012년 1,129원보다 소폭 하락한 1,080원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금리는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국내 경기 침체, 기준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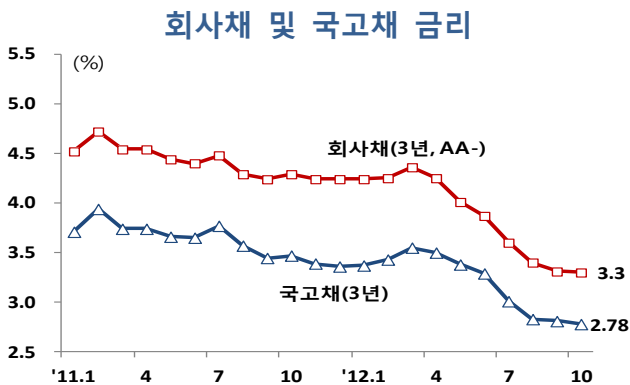
올 하반기 들어 유럽 재정위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금융불안 우려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는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실물경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년여 만에 두 차례 인하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금리는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럽 재정 위기 상존으로 국고채 소폭 상승에 그쳐

7월, 10월 두 번에 걸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3.25%→2.75%)한 이후 국고채 금리는 7월 3.01%에서 10월 2.78%까지 하락했다. 다만 9월 이후에는 ECB의 국채 매입 발언으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완화에 따라 하락세가 정체되었다.

회사채 금리의 경우, 국고채 금리와 동반 하락하면서 6월 3%대로 진입한 이후 9월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진 후 10월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주요 시장 금리 전망

	'11년	'12년		'13년(f)
		상	하(f)	
국고채(3년)	3.6	3.3	2.9	3.3
회사채(AA-)	4.4	4.0	3.5	4.0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내년 상반기까지 2%대 저금리 지속

향후 남유럽 국가의 국채 불안이 여전할 뿐 아니라 중국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국고채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시장 금리는 낮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고채 금리는 3.1%에 머물 전망이고 회사채 금리는 3.8%에 그칠 전망이다.

2013년에도 상반기 유럽 재정위기 불안 지속과 미국 재정 긴축으로 인해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2012년과 비교해 크게 다를 바 없는 3.3%가 예상된다. 회사채 금리도 저성장 속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4.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6. 대응방안

“ 신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제조업을 중시하는 정책의 일관성으로 위기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체질화되어야 할 것이다...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스피드 경영이다 ”

독일의 제조업 정책

정책일관성	제조업의 풍토 조성, 제품 서비스화
융복합화	제조업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확장
고부가가치	기술/품질/원가 우위 유지

자료: 포스코경영연구소 GIH 이슈보고서 “위기 탈출의 해법, 독일 제조업에서 배운다”(2012.10)

2013년 신정부 경기 회복에 역점

2013년 국내경제는 선진국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해 수출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13년 상반기 경기가 2012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적으로 건설경기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신정부는 우선 수출 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동남아 등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거래 활성화 및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택가격이 급락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원리금 상환을 유예함으로써 소비 둔화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 경쟁력 유지와 서비스업 확대 정책을 동시에 펴야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다. 금융위기 당시 한국경제가 강한 제조업 경쟁력으로 위기를 빠르게 벗어났듯이, 이번 위기에도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과 비중을 높여 고용 창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도 훼손하지 않도록 지원 및 제도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독일 제조업의 경우에서 보듯, 기술 및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과 함께 제품 서비스화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초격차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기업들의 스피드 경영과 경쟁 방식 전환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스피드 경영이다. 장기 저성장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스피디하게 잘 대응하느냐 여부, 즉 기업 비질런스(vigilance)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Real Time 경영’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의 전통적인 게임 룰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 방식을 통해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IV. 원자재 시장

“ 2013 년 원자재가격은 약세 또는 현수준 유지 ”

- 국제유가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배럴당 110달러(두바이) 내외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
- 2013년 이란 핵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및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배럴당 110달러 이상의 고유가 지속될 전망
- 비철금속 가격은 주요국의 경기부양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
- 구리 가격은 재고 축적 수요로 상승 전환이 예상되며, 알루미늄 가격은 수급 불균형 완화로 완만한 상승세 전망. 니켈과 아연 가격은 약세 지속 전망
- 철광석 가격은 철강경기 침체 지속으로 2013년 120\$/톤으로 하락세 지속되며, 원료탄은 일본·중국 등 주요국 수요 부진으로 2013년 179\$/톤으로 하락 예상
- 천연가스 가격은 생산자 공급 조절 및 산업부문의 수요 증가로 2013년 소폭 상승할 전망

1. 국제유가.....	47
2. 비철금속.....	49
3. 철광석	52
4. 원료탄	54
5. 천연가스.....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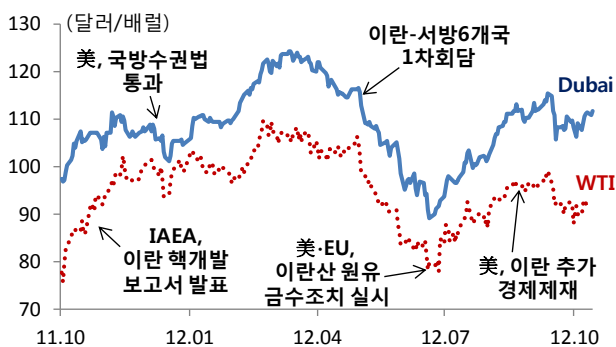
1. 국제유가

“ 국제유가, 최근 글로벌경기 둔화
우려로 배럴당 110 달러(두바이)
내외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 ”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유가 상승세 제한

7월 美EU의 이란산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 시행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3분기 이후 배럴당 110달러(두바이유) 내외에서 추가 상승이 제한된 모습이다.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비 7.4%까지 하락했으며,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미국의 재정절벽 현실화 우려 등으로 실물경기 및 원유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제유가와 이란핵 관련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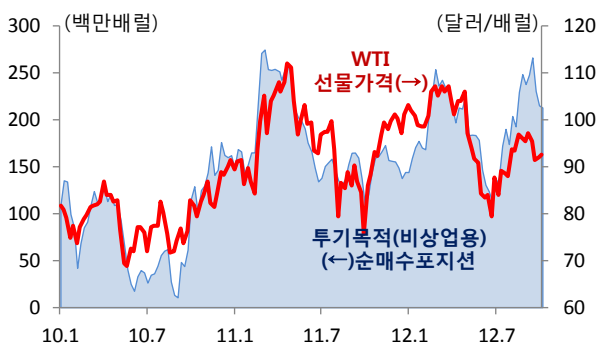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포스코경영연구소

원유 공급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국제원유 재고도 증가 추세

이란산 원유에 대한 금수조치로 이란 원유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日 360만 배럴에 이르던 원유 생산이 최근에는 日 250만 배럴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日 150만 배럴로 2011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도 급증하여 올해 4월 이후에는 이란의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량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원유 수요가 둔화되는 반면 재고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국제원유재고는 8월 기준 71억 배럴로 지난해 말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美 원유재고도 9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9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3.4% 증가했다.

투기목적 순매수포지션과 WTI선물가격



자료 : Bloomberg

이란·시리아 등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 부각되는 가운데 투기자금은 높은 매수 포지션 유지

국제 원유 수급은 점차 개선 추세를 보이나, 이란 핵 사태 등 중동 지역 불안은 점차 심화되고 있다. 對이란 강경 자세를 지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최근 신속한 공격 결정을 위해 총리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총리가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불안심리는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유가 조정 국면에도 불구하고 원유 선물시장에서 투기목적 순매수 포지션은 줄어들지 않고 200만 배럴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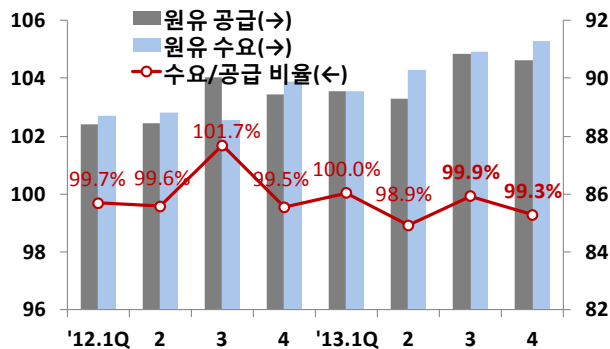
“ 2013년 글로벌수요 둔화 불구
지정학적 리스크로 고유가가 지속
될 전망 ”

2013년 수요 증가세 둔화 등 하락 압력과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 상승압력이 맞설 가능성

유로존 등 선진국들의 재정위기,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가 2013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10월) IMF도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PPP 기준)를 종전 3.9%에서 3.6%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같은 세계경기 전망 하향 조정으로 원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美 연준의 QE3, 日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등 선진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원유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유가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IA 세계 원유 수요/공급 전망



자료 : EIA

IEA, EIA 등 주요기관은 2013년 원유 공급 증가세 가 지속됨에 따라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최근 유지보수로 인해 생산을 일시 중단한 영국 북해 최대 유전인 Buzzard가 생산을 재개하였으며, 사우디가 공급량을 지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생산 차질 우려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12.9월) 발표한 중기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향후 이라크와 북미(오일샌드 등)를 중심으로 원유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美 에너지정보청(EIA)도 2013년 원유수요 둔화 및 공급여건 개선으로 수요/공급 비율이 100% 이하에서 변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 전망

	2012			2013				
	3분기	4분기	평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평균
Brent	110	115	113	115	115	116	117	116
Dubai	106	112	110	112	112	114	115	113
WTI	92	97	97	98	98	101	102	99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원

글로벌 수요 둔화 불구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적 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고유가가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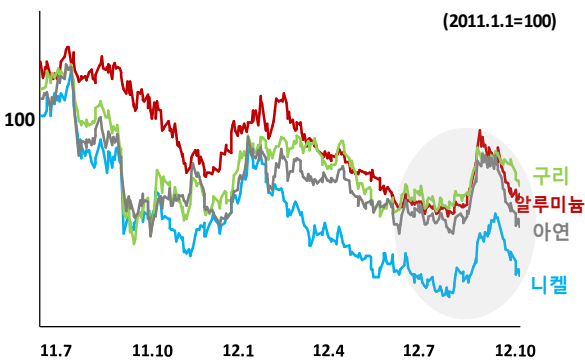
EU는 이란 기업의 자산 동결 등 추가 경제제재에 합의함에 따라 이란-서방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미 오바마 재선으로 롬니 당선에 비해 이란 공격 가능성은 완화되었지만, 이란 핵 저지를 위한 노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국제유가(Dubai)는 글로벌 수요 둔화 불구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배럴당 110달러 대의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이란, 시리아 등 중동지역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내년 이란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군사적 충돌에 따른 유가 급등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 비철금속

“ 2013 년 비철금속 가격은 美, 中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및 대외여건 개선에 의한 수요 회복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

비철금속 가격 추이



자료 : Bloomberg

글로벌 및 중국 비철금속 수급 전망

		(천톤)			
2013년		구리	알루미늄	니켈	아연
세계	생산	20,990	48,349	1,790	14,028
	수요	20,935	44,106	1,765	13,645
	수급	+55	+2,243	+25	+383
중국	생산	6,062	19,970	525	5,731
	수요	9,061	19,994	770	6,054
	수급	▲2,999	▲24	▲155	▲323

자료 : World Bureau of Metal Statistics, EIU

비철금속價 대외 여건 악화로 하락세를 지속

2010년 글로벌 경제 회복세로 급등세를 보였던 비철금속 가격은 201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면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 요인을 살펴보면, 1) 글로벌 경제 여건 악화 :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회복세 지연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수요 둔화 : 글로벌 경제 부진으로 제조업 지수(PMI)가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50선을 하회하고 산업생산이 침체되면서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 3) 투기자금 이탈 :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risk aversion)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투기자금이 달러, 엔화 등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4) 재고 조정 : 알루미늄 및 니켈 등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각국의 재고 조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상반기에 비철금속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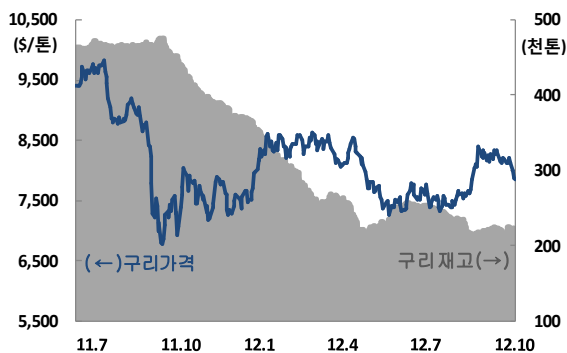
내년에는 풍부한 유동성 불구 가격 상승세 제한적

2012년 10월 들어 비철금속 가격은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결정에 따른 재정위기 진정 및 미국, 중국 등의 양적완화에 대한 기대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특히 美 연준에서 지난 9월 14일 추가 양적완화(QE3) 및 초저금리 연장을 발표한 가운데, 일본, 중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경기부양 정책이 이어지면서 비철금속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비철금속의 주요 수요국인 중국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013년 비철금속 가격은 각국의 추가 경기부양 조치에 따른 유동성 확대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글로벌 실물 경제지표가 호전되지 않으면 비철금속 가격이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어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구리가격은 재고축적 수요로 상승세로 전환되며, 알루미늄 가격도 생산 감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 완화로 완만하게 상승할 전망이다.”

구리 가격 및 재고 추이



자료 : Bloomberg

구리價 재고확충 수요로 완만한 상승 예상

2012년 구리 가격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중국의 재고 조정(destocking)으로 재고가 지속적으로 소진되면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산은 아프리카의 인프라 부족에 따른 Copperbelt 개발에도 불구하고, 잠비아의 First Quantum's Kansanshi 광산 파업 및 인니 Grasherg 광산의 임금협상 문제의 영향으로 둔화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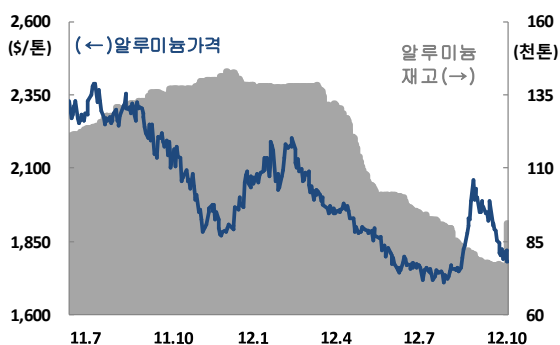
2013년에는 세계 1위 구리 광산인 칠레 Escondida의 생산 회복과 BHP Billiton의 2015년까지 투자 계획으로 생산량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최대 소비국인 중국, 미국 등의 경기 개선으로 구리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2013년 구리 가격은 초과 공급에도 재고 확충(restocking) 수요의 견인으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나, 대외 여건 개선이 불투명함에 따라 상승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루미늄, 감산에 따른 수급 불균형 완화 예상

알루미늄 가격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및 지난해 사상 최고의 재고 수준 기록에 따른 수요 둔화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는 고급 경량 소재의 이점으로 연료 절약형 자동차,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에서의 활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증가세가 지속되어 왔다. 2012년 알루미늄 수요는 지난해 대비 2.1%p 하락해 3.6%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수요가 소폭 늘어나면서 증가세는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다시 회복될 전망이다.

생산은 원료 가격 상승, 오염 방출 규제 및 주요 생산업체의 감산 계획 등에 따라 2013년까지 둔화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2012년 Rio Tinto(호주)가 상반기 중 6~8%, Alcoa(미국)가 12% 생산을 축소시켰고, Rusal은 향후 18개월 동안 6%를 감산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각사 감산계획 기준). 이에 알루미늄 수급은 2013년에 불균형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가격은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알루미늄 가격 및 재고 추이



자료 : Bloomberg

“ 니켈 가격은 수급 불균형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연 가격도 17년 만의 최대 재고 수준으로 상승세로 전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니켈 가격, STS 수요 둔화로 가격 하락 심화 예상

2012년 니켈 가격은 주요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생산량 증가로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되면서 25% 수준의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9월초 니켈 가격은 1~9월 중 최고점 대비 31.3% 감소를 기록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주요 수요처인 STS 생산이 부진해지고 있어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세계 스테인리스스틸 포럼(ISSF)에 따르면, 2011년에 둔화세를 보인 글로벌 STS 생산은 올해 1분기에 2.6% 감소했다. 또한 핀란드계 STS 생산업체인 Outokumpu사가 Thyssenkrupp의 STS 제조 전문 부문 Inoxum사를 인수하면서 독일에서의 수요도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반면, 생산은 중국 NiCrFe의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Falcanbridge Dominicana(스위스) 광산 재가동 및 세계 2위 Vale사(브라질)의 뉴칼레도니아 광산 생산 개시 등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2013년에 니켈 가격은 수요 둔화 속 과잉 공급으로 인해 수급 불균형이 더욱 확대되면서 가격의 하방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연 17년만의 최대 재고로 상승 전환이 어려울 전망

아연 가격도 구리, 알루미늄 등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는 올해 각국에서 재고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내수 부진, 유럽의 자동차 산업 위축에 따른 아연도 강판 소비 감소 등으로 예상보다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 日 자동차 부품 공급망의 정상화로 수요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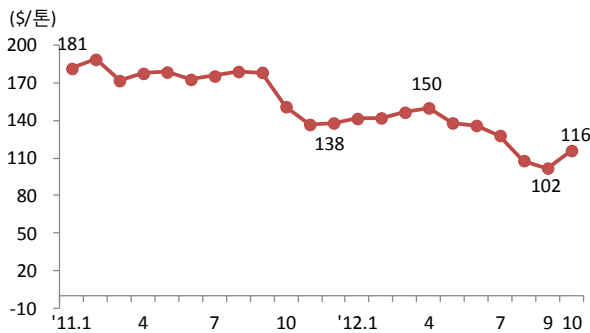
아연 생산 측면에서는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Huludao Zink Industry가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유티 시설들을 재가동하면서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아연 재고는 인도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에서 지난해부터 비축량을 확대한 가운데, 올해까지 6년 연속 초과공급이 지속되면서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아연 가격은 재고 소진 과정에서 수요 둔화가 가세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3. 철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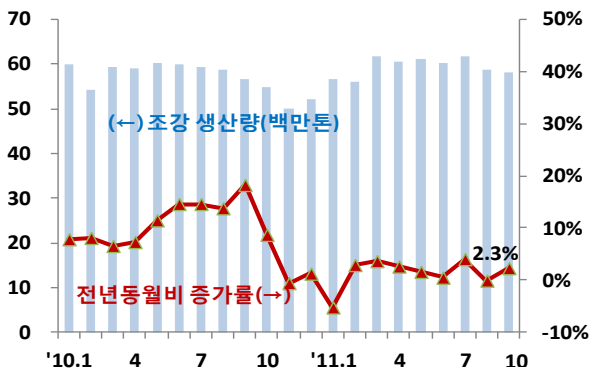
“ 철강사들이 철광석 가격 급락이 후, 재고 확충에 나서면서 가격 반등 ”

철광석 스팟가격



주: 철광석 가격은 중국 CFR Fe 62% 월평균 스팟가격

중국 조강생산량



자료: worldsteel

9월초 90\$/톤 이하까지 급락후, 반등

철광석 가격은 9월초에 가격 지지선인 100\$/톤이 무너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 붕괴 현상을 가져와, 금융위기 당시 최저 수준인 88\$/톤(9.6)까지 하락했다. 이는 올해 고점 155\$/톤 대비 무려 40% 급락한 것이었다. 이러한 급락세로 인해 9월 평균 가격은 102\$/톤을 기록했다. .

그러나 철광석 가격 급락으로 유통상들이 일부 구매를 하고, 철강사들도 국내광 대신 가격이 저렴한 수입 철광석 구매를 시작하면서 10월 가격은 116\$/톤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의 철도, 항만, 도로 건설 등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이 가격 재반등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철강사, 철광석 재고 확충위한 구매 수요 증가

철광석 수요를 보여주는 조강생산추이를 보면, 세계 조강 생산은 1~9월 누계로 0.6%, 중국은 1.3% 증가하면서 철광석 수요의 절대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철강생산량 증가로 철강재고는 누적되고 있어 철강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철강사들은 그동안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철광석만을 구매했으나, 최근 가격 하락 이후 일부 재고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광석 재고 보유 현황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중소형 철강사들의 수입 철광석 재고일수는 연초 39일에서 10월말에는 24일로 크게 줄어들었다.

철광석 가격 하락으로 호주 등 주요국 철광석 수출 감소

철광석 주요 수출국인 호주와 브라질의 3분기 철광석 수출량은 전년동기비 1.1% 감소한 2.12억 톤이었다, 또한 중국의 철광석 원광 생산량도 7~8월에 줄어들면서, 3분기 기준으로 2.9% 감소했다. 중국 야금광산기업협회에 따르면, 9월에 철광석 가격이 90\$/톤 이하로 급락하면서, 중국 철광석 생산능력의 40%를 차지하는 광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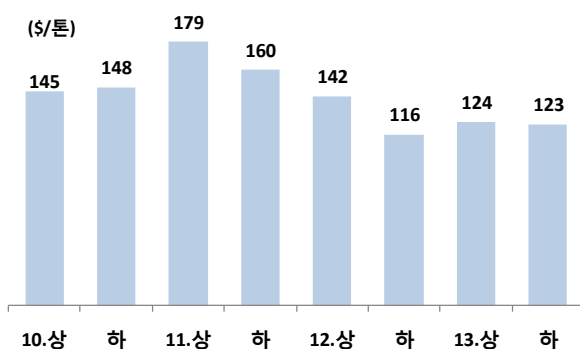
“ 철강경기 침체지속으로 철광석 가격은 2012 년 평균 129\$/톤, 2013 년 평균 123\$/톤으로 하락세 지속 ”

주요 공급사 생산 및 투자 동향

업체명	생산량 감축 및 투자계획 보류
Vale	2013년 생산량 목표 3.5억톤→ 3.1억톤
BHP B	서호주 포트 헤들랜드 확장사업 연기
Rio Tinto	기니 Simandou 광산생산 개시 연기
FMG	12년 생산량 86.5→ 82백만톤으로 축소.
	Solomon Hub와 Western Hub의 증설 투자 계획 보류

자료: 각 사 발표 자료 등 종합

철광석 스팟가격 전망



주: 철광석 가격은 중국 CFR Fe 62% 월평균 스팟가격

2013년에도 철광석 수요 부진은 지속될 전망

세계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지속, 미국 재정절벽 우려와 같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2013년에도 침체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당 지도부 교체 후 경기 부양책이 새롭게 나올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과열 방지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기는 어려워, 중국 경기도 내년에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공급과잉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철강사들이 일부 감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한 철강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빅 3’ 중심으로 철광석 공급량 조절 예상

Vale는 2013년 생산량 목표를 3.5억 톤에서 3.1억 톤으로 축소하였으며, 고급광인 펠릿 수요 감소로 펠릿 공장 가동 중단을 발표하였다. FMG는 Solomon Hub와 Western Hub의 증설 투자 계획을 보류하면서 2012 회계연도 기준으로 철광석 생산량도 86.5백 만 톤에서 82~84백 만 톤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BHP B는 서호주 포트 헤들랜드 외항 확장 사업을 연기한다고 발표해 감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원광 생산량은 태원강철의 7백 만 톤 규모의 철광석 광산 등 신규 광산 가동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철광석 가격, 2012년 연평균 129\$/톤, 2013년 123\$/톤으로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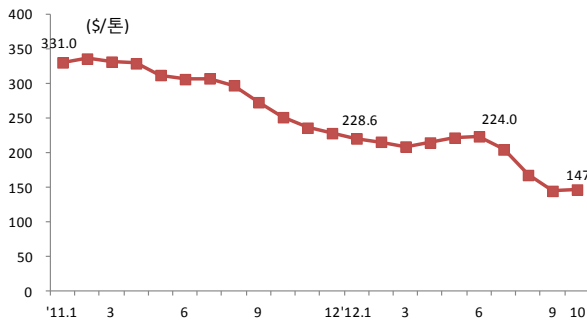
철광석 가격은 4분기에는 동절기 재고 비축 수요 증가 등으로 3분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하반기에 가격 하락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2013년 상반기, 하반기 가격은 2012년 하반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등 세계 철광석 수요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워, 연평균 가격으로는 2012년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원료사 빅 3의 공급 조절과 중국 철광석 고비용 생산 업체들의 가동중단에 따른 가격 조절 역할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4. 원료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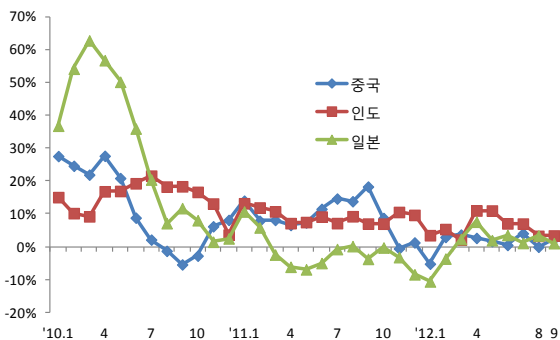
“ 원료탄 가격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인 140\$/톤대까지 하락
후 재반등 ”

원료탄 스팟가격



주: 원료탄 가격은 강점결탄 호주 FOB 월평균 가격

중국·일본·인도의 조강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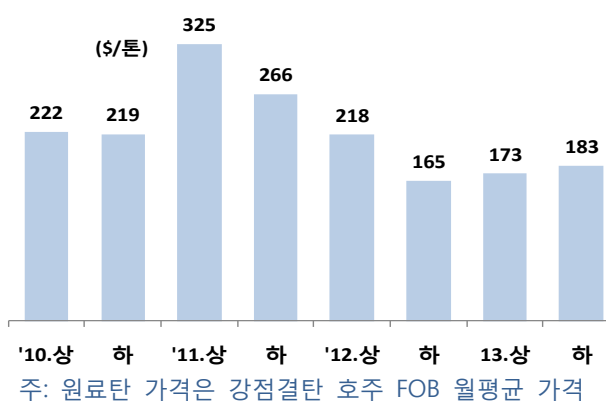
“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수요부진으로 가격은 2012년 평균 192\$/톤, 2013년 평균 179\$/톤으로 하락세 지속 ”

주요 공급사 감산 현황

BMA	탄광폐쇄 Norwich Park, Gregory
	프로젝트 연기: Peak Downs 탄광 확장
	중단 가능성: Saraji East project(14Mtpa)
Anglo	Moranbah North 광산(연 4백만톤) 감산
Rio Tinto	Blair Athol광산 폐쇄, Kestrel 광산 및 Ensham 감산 등
Xstrata	US\$10.3억의 석탄부문 지출 계획 연기
	그레고리 크리스탈 석탄광 폐쇄

자료 : 각 사 발표 자료 종합

원료탄 스팟가격 전망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수요 부진 지속 전망

유럽의 재정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구미 선진국은 물론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경제도 2013년까지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이제까지는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 역할을 했으나, 질적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의 철강수요는 2013년에도 크게 회복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도 2012년과는 달리 2013년에는 동일본 지진 복구 수요가 감소하여 철강수요가 2.9% 줄어들면서, 조강생산도 2012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BMA 등 주요 공급사의 감산 확대 예상

향후에도 원료탄 수요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공급 업체들은 생산을 일부 중단하고 있다. 제 1 공급업체인 BMA는 Bowen Basin에 있는 Norwich Park(생산비 200\$/톤의 고원가 광산), Gregory 노천탄광(생산능력 연 1백만 톤, 가동률 60%)을 폐쇄하였으며, Saraji East project 등을 재검토 중이다. Rio Tinto도 Blair광산 등을 폐쇄하면서 생산량 감축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주요 공급사들의 감산 움직임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고원가 중소형 광산들의 경우 도산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료탄 가격, 2012년 연평균 192\$/톤, 2013년 179\$/톤으로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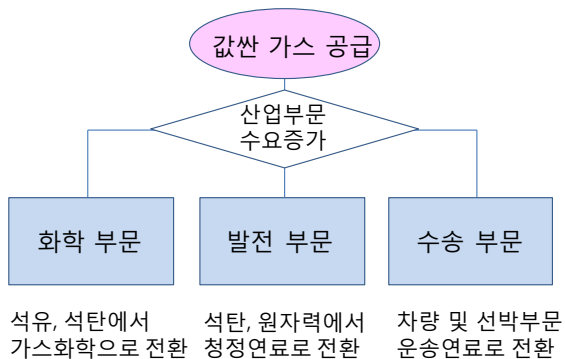
원료탄 가격은 2012년 4분기에 철강사들의 일부 재고 확충 수요 등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본적으로 철강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반등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 호주 동부 지역의 대규모 사이클론 발생에 따른 가격 급등 가능성은 상존한다.

원료탄 가격은 2012년 하반기 165\$/톤으로 상반기 대비 크게 하락하면서 2012년 연평균 가격은 192\$/톤이 예상된다. 2013년에는 상반기 173\$/톤, 하반기에는 185\$/톤으로 상승하여 연평균으로 179\$/톤이 예상된다.

5. 천연가스

“ 최근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화 추세는 생산자들이 공급량을 조절과 산업부문의 수요증가에 따라 내년도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값싼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산업지도 변화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2012)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세가 공급저해 요인으로 작용

2012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1.95~2.79\$/mmBtu 수준을 보였다.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셰일가스를 포함한 비전통가스 생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가스 공급량 증가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소비자는 유리한 상황이지만 단위당 4~6\$를 생산원가로 주장하는 생산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다. 엑슨모빌(ExxonMobile) 같은 오일-메이저는 가격이 오를 때까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 여름 전세계는 가뭄에 허덕이면서, 셰일가스 생산에 필요한 물 부족 문제를 가중시킴에 따라,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부문의 천연가스 수요증가로 가격 상승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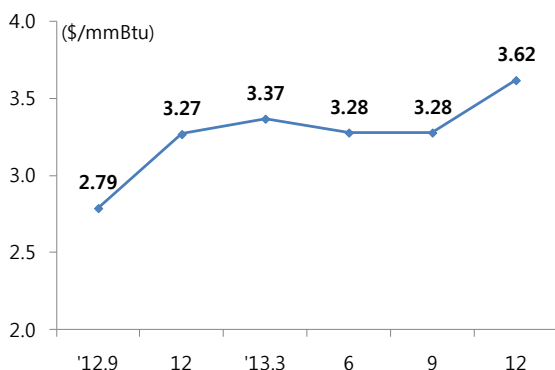
한편 값싼 천연가스의 공급은 산업부문에서 기존 연·원료를 대체하고 있다. 화학부문은 석유·석탄 중심에서 가스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며, 발전부문에서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했던 석탄발전에서 가스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운송부문에서는 가스차가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박 발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대량생산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기존 산업지도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부문에서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3.62\$ 수준으로 소폭 상승 전망

미국 에너지청(EIA)은 2013년 천연가스 가격이 3.22~3.62\$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생산자들이 공급량을 조절하고 산업부문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또한 천연가스를 생산하면서 초과 생산된 부분을 저장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하지만 2012년 하반기까지 설비 확보를 위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초과 생산된 가스를 태워버리거나 가스전을 막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여건의 변화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의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전망



자료 : EIA(2012)

“ 유럽지역은 재정위기로 천연가스투자 및 수요감소, 아시아는 수요증가가 전망되며, 중국과 남미지역에서는 셰일가스 본격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13년, 주요국의 천연가스 추가 구입량

(단위:만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총계
중국	450~540	300~360	300~360	600~720	1,500~1,800
일본	300~360	200~240	200~240	400~480	1,000~1,200
한국	105~150	70~100	70~100	140~200	350~500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EU, 재정위기로 천연가스 투자 및 수요감소 전망

유럽국가들의 천연가스 수요는 작년과 비교하여 2012년 상반기에 4.3% 감소하였다. 이는 유럽 각국의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EU 6개국에서 2.5% 감소하였다. 천연가스 가격도 평균 2.7~9% 하락했다.

한편 EU의 내년도 경기여건이 불투명해 천연가스 수요가 급속히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 최근 EU는 러시아의 북극해 가스전 개발을 환경이유로 중단시켰으며, EU 권역 내 셰일가스 개발 또한 늦추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 수요 증가 가능성이 낮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개발프로젝트에 투자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시아, 수요 증가로 천연가스 가격상승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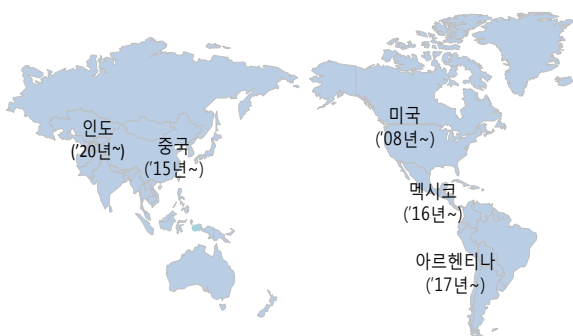
최근 아시아 지역의 천연가스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의 청정성과 편리함에 기인한다. 중국은 12.5계획에서 천연가스 비중을 2011년 현재 3~4%에서 2015년 7~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내년에만 천연가스 1,500만 톤을 추가 수입해야 함을 의미한다. 일본은 작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의존도를 낮추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만 1,000만~1,200만 톤의 LNG를 추가로 수입했다. 금년에도 전년대비 500만 톤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011년 3,600만 톤의 LNG를 수입하면서, 전년대비 13%의 수요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도 증가율이 1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아시아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 천연가스의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남미국가, 셰일가스 본격 생산 추진

최근 ‘가스분야의 혁명’으로 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셰일가스(진흙암석층에 존재하는 메탄가스) 개발 붐이 세계 최대 매장지인 중국을 비롯, 남미지역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유럽이 재정위기로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다. 중국은 '15년 본격생산을 목표로 엑슨모빌과 같은 오일-메이저와 협력 중이다. 또한 남미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대량생산을 위해서 관련법을 정비 중이다. 이와 함께 남아공과 인도에서도 천연가스 본격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의 셰일가스 본격생산 시기



자료 : IEA(2012), EIA(2012)

V. 주요 산업

“ 2013 년에도 제조업 및 건설산업 부진 지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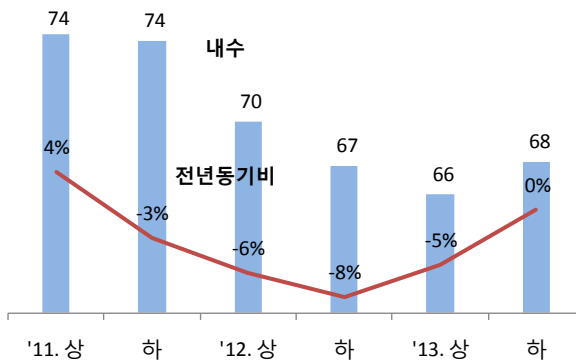
- 자동차,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수 시장 침체는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수출 역시 2013년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조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극심한 부진을 기록하면서 본격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경기 회복 및 대규모 선박 해체가 없다면 침체가 5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정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로 공공과 민간 건설부문 모두 침체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며, 해외건설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가전, 2013년 가전제품 수출입은 각국의 추가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및 내수 회복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2013년에도 자동차생산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선 건조량도 신규수주 부진으로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철강 내수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
- 글로벌 철강수요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진 만회 전략도 곧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보여 경영난 가중 예상

1. 자동차	59
2. 조선	61
3. 건설	63
4. 가전	65
5. 철강	67

1.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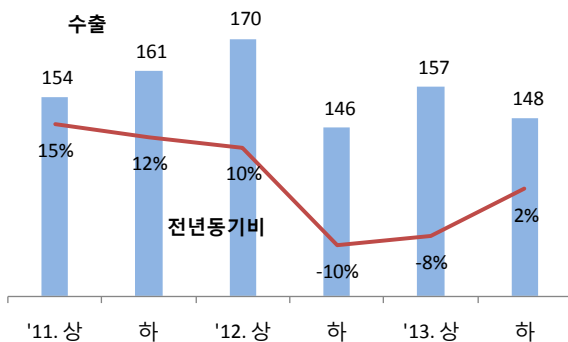
“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내수 시장 침체는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수출도 2013년 상반기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동차 내수(만대)



자료 : KAMA,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출(만대)



자료 : KAMA, 포스코경영연구소

내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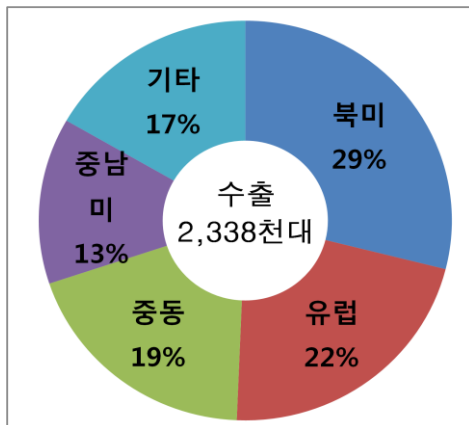
신차효과 감소,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판매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역시 부동산 가격 하락, 수입차 점유율 확대 등으로 전년동기비 6% 감소했다. 이러한 경기둔화 국면에 맞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구매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지난 9월 발표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자동차 구매가격의 1~2% 하락에 불과해, 이번 세제 혜택만으로 자동차 내수 침체기를 벗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9월 내수 실적 역시 전년 동월비 7% 감소하면서, 자동차 구매세 감면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난 8월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 등 주요 메이커들의 노조들이 부분 파업을 진행하면서, 공급 차질로 인한 내수 감소가 발생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자동차 내수는 전년동기비 8% 감소한 67만대로 추정된다. 이러한 감소세가 2013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2013년 연간 자동차 내수는 전년비 2.5% 감소한 134만대로 전망된다.

수출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로 진입

반면, 자동차 수출은 내수와는 다르게 올 상반기까지 최대의 실적을 유지해 왔다. 특히, 유럽향 수출은 지난해 시작된 재정위기에 불구하고, 한-EU FTA효과로 올해 1분기까지 지난 1년간 매 분기 두 자릿수의 대폭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러한 FTA효과가 사라졌고, 3분기부터는 두 자릿수의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과 더불어 최대 수출 시장인 북미 지역도 하반기부터는 전년동기비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유럽, 북미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감소세가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되면서 연간으로는 전년비 3% 감소한 305만대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산 30만대 규모의 중국 현대자동차 공장이 지난 7월부터 가동되고, 연산 15만대 규모의 브라질 공장 역시 9월부터 가동됨에 따라, 동 지역 수출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출은 당분간 증가세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내수 침체 지속과 더불어 수출마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자동차 생산은 올 하반기부터 하락세 전환이 예상된다.”

지역별 수출(2012년 1~9월)



자료 : KAMA, 포스코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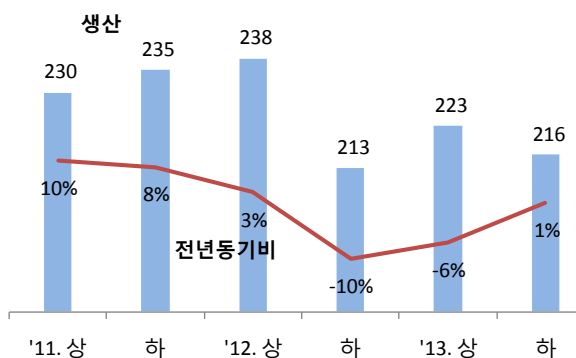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북미 등 선진국향 수출이 과반 차지

국내 자동차의 지역별 수출은 북미, 유럽 등 선진국향 수출이 전체 수출의 51%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남미, 중동 등 신흥국 지역으로 수출되었다. 특히, 북미 지역 수출은 상반기에 전년동기비 30%를 넘는 대폭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유럽지역 수출은 1분기 54%의 대폭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분기는 29%, 3분기는 21% 감소하였다. 중동지역에서도 1분기 대폭 성장, 2분기 이후 급격한 하락세의 유럽과 유사한 패턴의 변동 추이를 나타냈다. 전체 수출의 13%를 차지하는 중남미 지역 수출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1분기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량은 전년동기비 12% 감소한 31만대를 기록하였다. 기타 지역으로 포함되는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수출은 유럽과 유사한 수출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러시아 등 동유럽 지역은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동 지역 수출 수요의 7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이 전년동기비 60%를 넘는 기록적인 증가를 보이면서 수입수요가 대폭 확대된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국내 생산은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한 내수와 더불어 금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수출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올 하반기 생산은 전년동기비 10% 감소한 213만대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8월의 자동차 생산은 현대기아차, GM 대우 등 주요 자동차사들의 노조가 부분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년동월비 26%의 대폭적인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생산 감소가 단순하게 파업의 영향이라면, 재고확충을 위해 9월 생산은 대폭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파업의 영향이 제한적이던 9월 역시 8% 감소하면서, 최근 생산 감소는 파업의 영향보다는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의 수요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12년 연간 생산은 전년동기비 3.1% 감소한 451만대로 추정된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하락세는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하반기는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반등이 예상된다. 2013년 연간으로는 전년비 2.8% 감소한 439만대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은 국내 생산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침체기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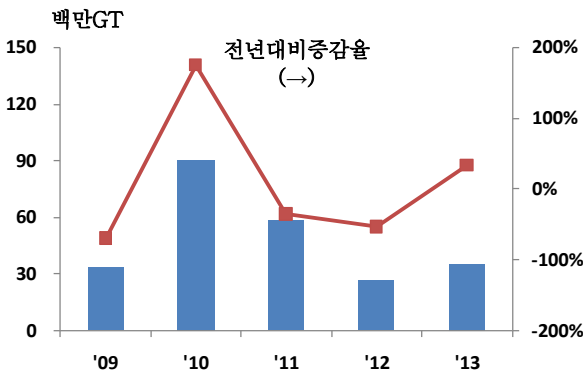


자료 : KAMA, 포스코경영연구소

2.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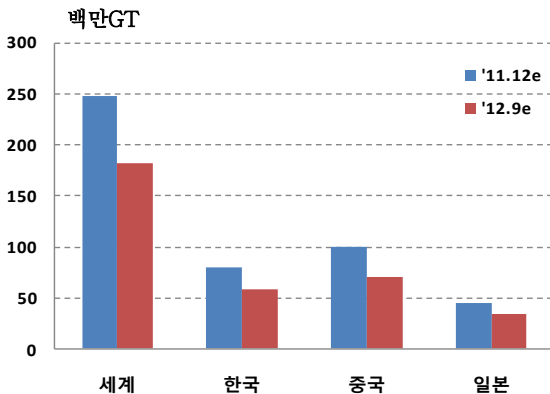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신규 수주가 극심한 부진을 기록하면서 본격 침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 회복 및 대규모 선박 해체가 없다면 침체가 5년 이상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글로벌 신규 수주 추이 및 전망



자료 : 클락슨, 포스코경영연구소

국가별 수주잔량 현황



자료 : 클락슨

'12.9월 현재 신규 수주, 전년동기대비 절반 수준

2012년 10월 말 현재 글로벌 신규 수주는 22.8백만GT로 전년동기의 42.6백만GT 대비 46.5%의 감소를 기록했다. 3월말 기준으로는 46.2% 감소, 5월말 기준으로는 48.2% 감소하는 등 시간이 지나도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았다. 동기간 한국의 수주는 8.6백만GT로 전년동기대비 61.6%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8.3백만GT로 43.5%의 감소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해 상반기 극심한 수주 부진을 기록했던 일본은 10월 말까지 3.5백만GT를 수주하면서 105.9% 증가를 기록했다.

한·중·일 3국의 수주는 총 20.4백만GT로 전체 수주의 95%를 차지하였으며, 국가별 수주 비중은 한, 중, 일이 각각 37.7%, 36.4%, 15.4%를 기록했다. 특히 한·중의 수주 비중은 '04년 50.6%에 불과하였으나 '11년에는 78.7%까지 증가하면서 한·중 양강 구도가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주잔량 지속 감소하면서 2억GT 이하로 추락

9월말 현재 글로벌 수주잔량은 181.3백만GT로 2011년 말 248.2백만GT 대비 27% 가까이 감소하면서 2005년 말 174.4백만GT 이후 처음으로 2억GT를 하회하였다. 이는 글로벌 연간 건조량이 1억GT 수준임을 감안하면 2년치 건조물량이 안 되는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안정적 조업이 가능한 최소 수주잔량이 2년치 건조량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수주잔량은 많은 조선사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음을 의미한다.

향후 1~2년간 수주 부진 지속 불가피 예상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선박 과잉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급격한 수주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의 경우, 지금과 같은 수주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극심한 부진을 보였던 2009년의 33백만GT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올해의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수주가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선박의 해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신규 수주를 견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면 5년 이상의 수주 부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수주 부진 불구, 건조는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 건조량은 올해까지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향후 2~3 년간은 건조량의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별 건조 현황 (백만GT)

	한국	일본	중국	유럽	기타	세계전체
'12.1~9	26.9	14.2	30.1	2.0	3.4	76.6
전년동기비	2.7%	0.0%	5.6%	-4.8%	21.4%	3.8%
'11.1~9	26.2	14.2	28.5	2.1	2.8	73.8

자료 : 클락슨

선종별 신조선가 추이

	'12.1	'12.3	'12.6	'12.9	증감률
탱커(VLCC)	98.0	97.0	96.0	95.0	-3.1%
벌커(Capesize)	48.0	47.0	46.5	46.0	-4.2%
컨테이너	68.5	65.5	62.0	58.5	-14.6%
LNG선	202.0	202.0	201.5	201.0	-0.5%
클락슨지수	137.6	135.3	131.3	126.8	-7.8%

자료 : 클락슨

'12.9월 말 현재 건조, 전년동기대비 증가세 유지

2012년 9월 말 현재 세계 건조량은 76.6백만GT로 전년동기의 73.8백만GT 대비 3.8%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2월말 23.5%, 4월말 18% 증가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추세다.

좌측 표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건조 실적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9월 말 현재 26.9백만GT를 건조하여 전년동기의 26.2백만GT 대비 2.7% 증가했으며, 중국은 30.1백만GT를 건조하여 5.6%의 증가를 기록했다. 전체 건조 중 한, 중, 일의 건조 비중이 각각 35.1%, 39.3%, 18.5%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극심한 수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주 물량에 대한 건조는 정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올해까지는 예년 수준의 건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계 건조량은 103백만GT로 전년대비 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34.9백만GT를 건조하여 전년의 35.5백만GT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 그 동안 계속되어 왔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한국, 중국을 포함한 내년의 세계 건조량은 올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계획된 건조 일정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2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내년의 건조 계획은 이미 거의 마무리된 상황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소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2013년 세계 건조는 79백만GT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건조는 30백만GT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가 큰 폭으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이와 같은 건조 감소세는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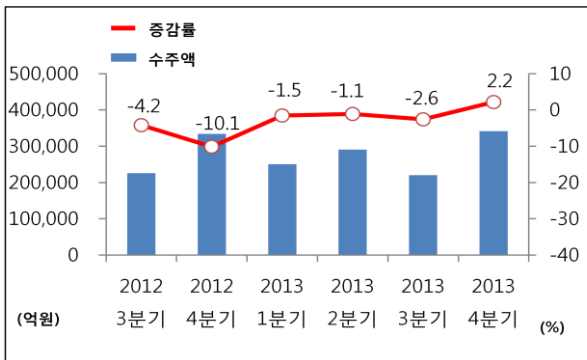
조선경기 침체로 전선종 가격 하락세 지속

수주가 부진하면서 선박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선종에 걸쳐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의 가격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9월 말 현재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26.8를 기록하면서 올초 대비 7.8% 하락하였다. 126.8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2009년의 137.7 보다 낮은 수준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둔화, 선박 과잉 등 수주 회복에 대한 모멘텀 부재로 선박 가격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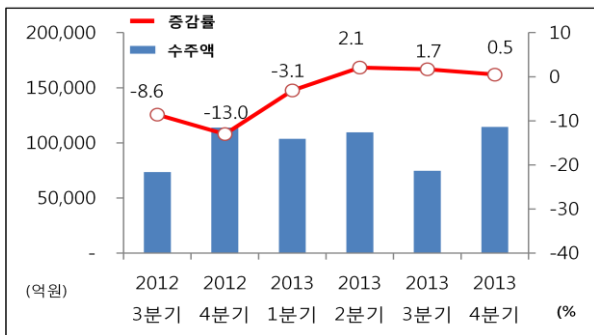
“ 주택, 관공서, 발전설비 중심의 건설수주 증가로 건설투자 확대가 예상되나 회복국면 전환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수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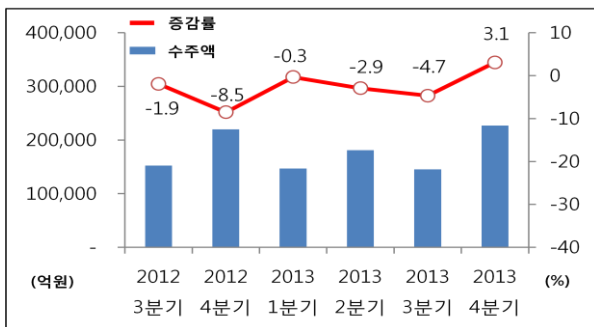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토목수주 전망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건축수주 전망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국내 건설시장, 2013년에도 침체 지속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건설수주는 2007년 128조원을 정점으로 2009년 119조원, 2011년 111조원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또한 글로벌 경기 재침체 우려로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110조원을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불확실성이 토목 수주 감소 요인으로 작용

토목수주는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분기부터 2011년 4분기까지 9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2012년 상반기 도로 및 교량(64.3% 증가), 발전 및 송전 설비(117.9% 증가) 발주 증가로 전년동기비 21.2% 증가하였다.

2012년 상반기에 재정투자가 조기 집행됐고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민간부문 건설발주가 축소 혹은 지연되면서 2012년 하반기 토목수주는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된다. 2013년에는 공공부문 토목수주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SOC 예산이 2012년 9월 말 현재 23.9조원으로 2012년 22.6조원에서 다소 증가한 수준이나 복지 예산 증가로 세출 조정 과정에서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면서 신규사업 발주물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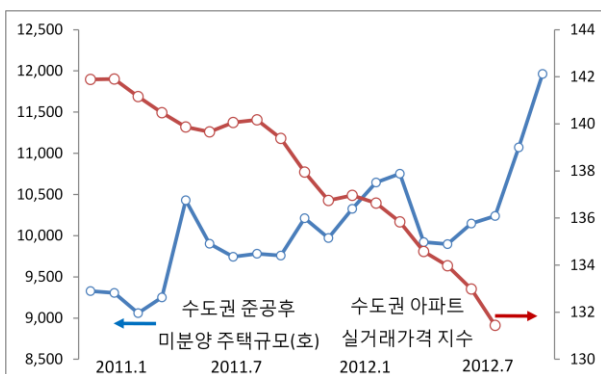
건축수주, 공공기관 이전 청사 등 비주거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소폭 회복 가능성

건축수주는 2007년 92조원을 정점으로 2010년 62조원까지 하락했으나 2011년에는 72조원으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2년 상반기 건축수주는 관공서(전년동기대비 32.8% 증가) 및 주택(전년동기대비 16.2% 증가) 수주가 성장을 견인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였다.

세종시, 공공기관 이전 청사 착공 등의 비주거용 건축물이 수주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용 건축물 또한 LH공사의 구조조정으로 한동안 연기되었던 공공부문 사업발주가 재개되고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2011년 하반기부터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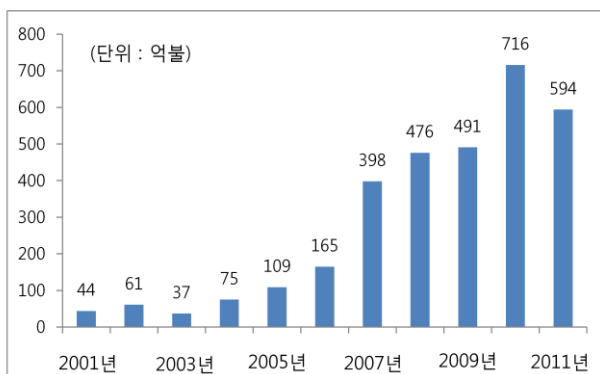
“ 2013 년 중동 지역에서의 유럽 및 한국 건설업체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

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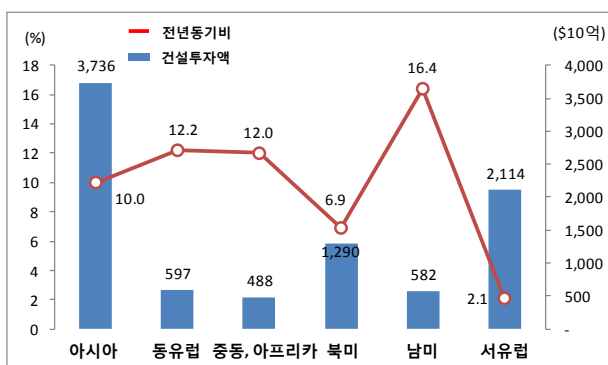
자료 : 국토해양부

국내기업의 해외건설수주 규모



자료 : 해외건설협회

2013년 세계 건설투자 전망



자료 : 포스코경영연구소

2011년 상저하고의 기저효과와 지방 주택수주 회복세가 둔화되고 수도권 주택시장 회복도 지연되면서 2012년 하반기 건축수주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13년 건축수주는 지방의 주택수주 감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민간부문 비주거 건축수주 감소가 예상되며 공공부문도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세종시 청사 착공 물량이 2012년 대비 대규모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수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수주가 2011년, 2012년 호조세를 보이면서 주택시장이 회복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건설경기의 회복세가 2013년까지 지속될 것인지 여부와 수도권 주택건설 경기로의 확대가능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해외건설시장, 시장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이 주요

해외건설수주는 2010년 UAE 원전건설 사업 수주로 716억 달러의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 유가상승으로 중동지역 재정수입이 풍부해지면서 플랜트와 인프라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또한 남미,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의 건설투자로 전년동기대비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건설업체의 2013년 해외건설수주는 유럽 건설업체들의 공격적인 수주활동으로 성장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자국 건설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유로지역 건설사들은 중동, 신흥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과다 경쟁으로 한국 건설업체의 사업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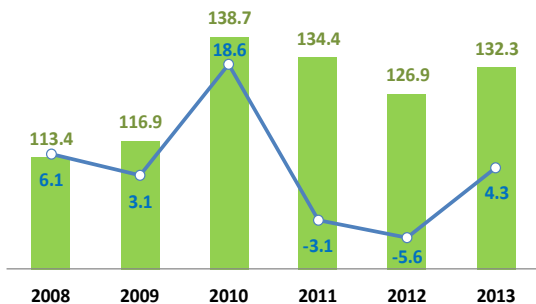
최근 중동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에서 유로화 약세 등에 기인한 유럽 건설업체의 수주 성공률이 한국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2013년 중동을 비롯한 신흥국 건설시장에서의 유럽과 한국 건설업체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 중국 건설업체 또한 적극적인 정부지원과 높은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펼치면서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도 국내 건설업체는 신시장 진출을 위한 지역 다변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내 건설업체의 주요 해외건설수주는 중동지역, 플랜트 공종이었으나 최근 중남미,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주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가전

“ 2012 년 상반기 가전생산 지수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글로벌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하락하고 있다. ”

가전 생산 현황 및 전망



주 : 영상음향기기 및 가정용기기 기준
자료 : 통계청, 포스코 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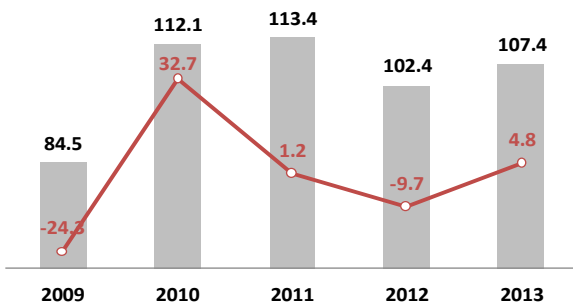
생산,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로 4분기 연속 하락

2012년 상반기 가전생산 지수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와 글로벌 경제 둔화 여파로 인한 수출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4.0% 하락했다. 상반기에 가전 생산은 에어컨 등 계절 가전 수요의 예상 밖 부진, 가계부채에 따른 구매력 위축 및 2010년 가전산업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지속 등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수요산업 둔화로 국내 산업도 동반 침체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크게 줄어들면서 가전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계대출이 9% 내외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당분간 소비심리가 악화되면서 가전수요가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3년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증가세 전환 예상

2013년에는 대외적으로 미국, 중국 등에서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유로존 재정위기 완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면서 대외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형 개별소비세율 인하 등의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해 나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3년에 가전 생산은 소폭 늘어나면서 연간으로 4.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가전제품이 이미 에너지효율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국내 가전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가전산업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가전 수출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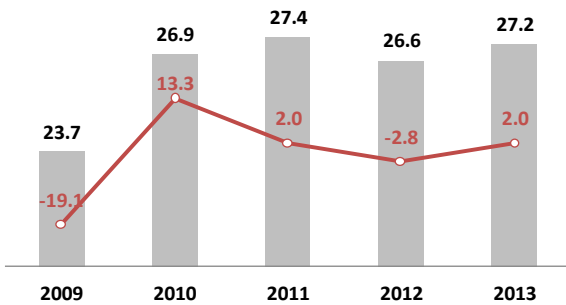
주 : 가전 수출입은 MTI Code 821~824 기준
자료 : 관세청

수출, 반덤핑 승소 및 올림픽 특수로 감소 폭 둔화

2012년 2분기 가전제품 수출은 유럽 실물경제 침체, 중국 경제 둔화 등 글로벌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 반덤핑 승소 및 런던 올림픽 특수로 감소 폭이 둔화되었다. 특히 상반기 북미지역 수출은 반덤핑 혐의로 5.6% 감소했으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 대형업체의 냉장고 덤핑 혐의에 대해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하반기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성장을 보여오던 중국의 가전산업이 가전하향(家電下鄉),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 종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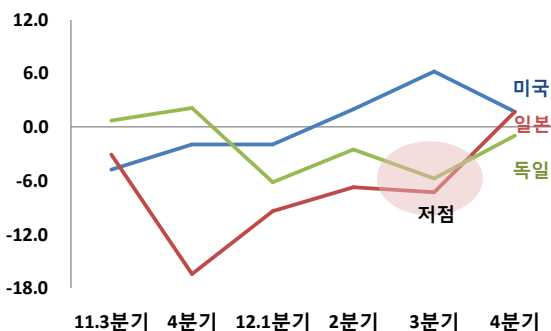
“ 2013년 가전제품 수출입은 각국의 추가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소비심리 개선 및 내수 회복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

가전 수입 현황 및 전망



주: 가전 수출입은 MTI Code 821~824 기준
자료: 관세청

주요국 가전 생산 동향 및 전망



자료: CRU

판매 폭이 크게 둔화되는 등 가전 경기가 급락하면서 중국향 가전 수출은 둔화될 전망이다.

2013년 수출은 4%대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는 올해 9월 미국에서 경제 부진의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3QE) 정책으로 인해 향후 소비심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주요국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입, 중국 저가물량 유입에도 내수부진으로 감소

2012년 상반기 수입은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물량 유입과 대형 유통점의 반값 할인판매에 따른 TV, 음향기기 부품 수요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8% 감소하는데 그쳤다. 하반기에도 가전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수입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13년에 수입은 내수 회복 및 추가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상승 전환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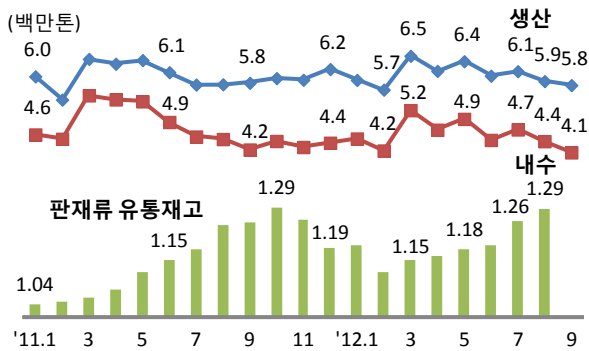
주요국, 경기부양으로 완만한 회복세 예상

2012년 상반기 유럽 주요국의 가전산업은 실물경제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부진을 이어갔으나, 중국의 4대 가전산업(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컬러TV)은 정부 지원과 자국 수요의 견인으로 화동-중남 지역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의 가전산업도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완만하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하반기에 주요국 가전산업은 글로벌 경제 회복 지연 및 유럽 주요국 건축 지속 등의 여파로 둔화되고 있다. 특히 독일 및 일본의 가전산업은 3분기에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에는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 가전산업이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5. 철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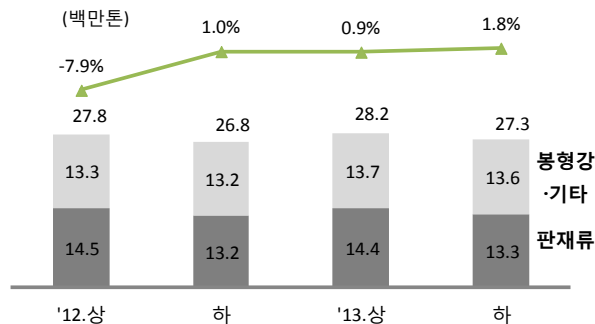
“ 2013 년에도 자동차생산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2 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선 건조량도 신규수주 부진으로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철강 내수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국내 철강수급



자료 : 한국철강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 내수 전망



주 : 수입은 반제품 포함

자료 : 한국철강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 내수는 '09년 이후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2012년 국내 철강시장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2011년 4분기부터 전년대비 감소세로 전환된 내수는 2012년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수는 1~9월 누계로 전년동기대비 5.3% 감소했는데 4분기에 소폭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연간으로 -3.8%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에 -22%의 수요 급감을 경험한 이후 3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내수 부진에 따라 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재고부담이 커지면서 수요 성수기를 대비한 재고투자가 늘어나기 어려운 점도 내수(명목소비)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간접수출이 많은 산업구조가 내수 부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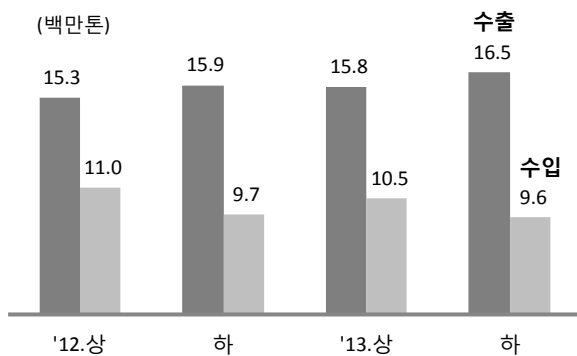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 경기 둔화로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제조업 생산활동이 침체되면서 후판, 냉연 등 판재류 수요가 10% 가까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박, 가전 등의 수출을 통한 철강 간접수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국내 산업구조 상 글로벌 경기의 침체는 상승작용을 일으켜 철강 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국내 철강수요도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13년에도 내수 회복은 어려울 전망

2013년에도 자동차생산이 소비심리 위축으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조선 건조량도 신규수주 부진으로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어 철강 내수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감소에 대한 기저효과와 재고확보 수요, 건설용 강재수요 증가 등을 감안할 때 1%대의 완만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판재류는 여전히 부진할 전망이다. 과거 2년 연속 내수 감소를 기록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제조업 부진이 심화될 경우에는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글로벌 철강수요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진 만회 전략도 곧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

철강 수출입 전망



주 : 수입은 반제품 포함

자료 : 한국철강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

국내 철강수급 전망

	(백만톤)			
	'10년	'11년	'12년	'13년
내수	52.4 (15.4%)	56.4 (7.6%)	54.3 (-3.8%)	55.0 (1.3%)
수출	24.9 (21.1%)	29.1 (16.9%)	31.2 (7.3%)	32.3 (3.6%)
생산	65.9 (15.9%)	72.3 (9.6%)	72.7 (0.6%)	74.5 (2.3%)
수입	25.1 (21.9%)	23.1 (-7.8%)	20.8 (-10.1%)	20.1 (-3.3%)

주 : 수입은 반제품 포함, ()는 증감률

자료 : 한국철강협회,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요 둔화는 국내 만이 아닌 글로벌 트렌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수요 증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세계철강협회(worldsteel)는 2013년 세계 철강수요를 3.2% 증가한 14억 5,500만 톤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4월에 예상했던 4% 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다. 특히 중국 철강수요는 2012년에 2.5%, 2013년 3.1%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여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세계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중국 수요의 둔화는 세계 철강시장의 부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는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철강수요를 창출하여 세계 철강경기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재정여력의 한계 등으로 그러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확대 통한 내수 부진 만회도 한계에 봉착

이처럼 글로벌 철강수요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진 만회 전략도 한계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수출이 전년대비 14% 증가하면서 내수 감소의 충격을 완화시켰으나 하반기에는 수출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하여 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동남아 등의 수요 둔화와 직결된 수출의 저성장 추세는 2013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입재에 대항한 내수 시장 방어가 여전히 화두

내수 부진과 국내 공급능력의 확대로 수입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공급의 수입 대체 효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점차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장은 중국과 일본의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공세에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3년 수입은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어 여전히 2천만 톤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결국 국내 철강사들로서는 내수시장의 회복은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도 난관에 봉착하고 수입재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3중고'의 상황을 헤쳐나가기 쉽지가 않은 2013년이 될 것이다.

연구진

<연구 총괄> 고준형 리서치그룹리더 (jgoh@posri.re.kr)

<감수> 곽강수 리서치그룹리더 (gskwak@posri.re.kr)
 허광숙 리서치그룹리더 (kshuh@posri.re.kr)
 박경덕 수석연구위원 (poleeye@posri.re.kr)

<Excutive Summary 및 전망개관>

고준형 리서치그룹리더 (jgoh@posri.re.kr)
김영삼 연구위원 (youngsamkim@posri.re.kr)
현석원 연구위원 (kyotohyun@posri.re.kr)

<세계 경제 전망>

미국 : 유지호 책임연구위원 (kitanjiho@posri.re.kr)
유로존·일본 : 윤재호 수석연구위원 (jhyoon@posri.re.kr)
중국 : 사동철 수석연구위원 (dsa@posri.re.kr)
동남아시아 : 김영삼 연구위원 (youngsamkim@posri.re.kr)
러시아·CIS : 오영일 수석연구위원 (youngil@posri.re.kr)
아프리카·MENA : 서상현 연구위원 (unisa21@posri.re.kr)
중남미 : 오성주 책임연구위원 (supremo9@posri.re.kr)

<국내 경제 전망>

현석원 연구위원 (kyotohyun@posri.re.kr)
유지호 책임연구위원 (kitanjiho@posri.re.kr)

<원자재 시장 전망>

국제유가 : 김영삼 연구위원 (youngsamkim@posri.re.kr)
비철금속 : 추지미 연구위원 (jmchu@posri.re.kr)
철광석·원료탄 : 김정수 연구위원 (ninebean@posri.re.kr)
천연가스 : 장기윤 수석연구위원 (serijky@posri.re.kr)

<주요 산업 전망>

자동차 : 최부식 연구위원 (busikc@posri.re.kr)
조선 : 장원익 수석연구위원 (wjang@posri.re.kr)
건설 : 김훈상 연구위원 (hsangkim@posri.re.kr)
가전 : 추지미 연구위원 (jmchu@posri.re.kr)
철강 : 공문기 수석연구위원 (mkkong@posri.re.kr)